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일간) No. 637 1981년10월6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uesday, October 6, 1981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김 명 규
편 집 인:이 석 현
광 고 부 장:송 광 호
식 자 부 장:박 부 용
편집자문위원:윤 방 현

EAST ASIAN LIBRARY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OCT 7 1981

SEOUL '88

# 남북 단일팀 적극추진

## 한국, 북한에 제의 서한 보내

〈바덴바덴－김성우 특파원〉 서울이 88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된후 한국대표단은 각국기자 1백20명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영수 서울시장은 8백50만 서울시민과 5천만 국민을 대신해 IOC에 감사한다고 서두를 꺼내고『88년 올림픽의 서울개최를 계기로 북한과의 관계가 호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상호 대한올림픽위원장은 『앞으로 국제경기에서 남북한 단일팀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표결에서 일본과의 표차가 많이 난 것은 IOC가 정치적 이념을 떠나 올림픽정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수교국가라도 올림픽관계자와 보도진의 입국을 최대로 보장할 것이며 올림픽기간중 통행금지에 대해서도 최대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88년 올림픽개최지로 결정된 한국은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과의 단절상태가 치유되기를 바라고 있다.

올림픽 서울개최가 결정된 직후 박영수서울시장은 「우리는 분단된 국가」라고 전제하고 『올림픽개최를계기로 남북간에 대화의 활동적인 대화가 이뤄져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말했다.

조상호대한 체육회장은 『지난6월19일 북한측에 스포츠회담과 커다란 국제경기에서의 단일팀 구성에 관한 논의를 하자고 서한을 띄웠으나 여지껏 아무 회답이 없다고 밝히고『그러나 계속 이와같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후안·안토니오·사마란치 국제올림픽위(IOC) 위원장은 올림픽 서울개최가 결정된 직후 전두환 대통령에게 통보하는 전문을 발송했다.

소련및 중공과 외교관계가 없는 한국은 IOC에 대해 88년 올림픽은 세계 어느 국가의 선수나 임원진도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다는 확약을 했다.

이와같은 조건은 IOC가 올림픽을 주최하기를 희망하는 국가의 정부에 보증사항으로 요구하고 있는것이다.

(관련기사 2 5 6 7 8면)

## 생모 신격화운동등

### 김정일 이미지 부각

(서울28일－연합)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을 김일성의 후계자로 삼고 있는 북한은 김정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김의 사망한 생모인 김종숙의 신격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제1회 "한인의날" 기념식

## 내년에는「파레이드」예정

처음으로 맞는"한인의날" 기념식이 캐나다 각지역한인회 주최로 3일 일제히 거행됐다.

토론토한인회는「개천절」을 겸한"한인의 날"기념식을 주최, 이날 상오11시 한인회관에서 교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거행됐다.

지난 8월말 출범한 새한인회장단은 이번 제1회"한인의 날"은 시간관계로 충분한 준비를못해 간단한기념식으로 대체했다.

박인순 신임회장은 이날 뉴욕교민퍼레이드 참관차 뉴욕에간 관계로 불참, 장영채 부회장이 대신읽은기념사에서 "우리도 이제 캐나다속의 한국인의 긍지를 갖게됐다. 내년도에는 토론토 인근교민 전부가 참석하는 퍼레이드를 불루어거리를 중심으로 화려하게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훈 총영사는 "개천절인 오늘이 한인의 날로 제정된것은 더욱 뜻있는 일이다. 이제 우리 한국인도 88년도 서울올림픽을 개최키로 됐다는 뉴스에 접할때 한국의 국력이 세계 속으로 퍼지게 되었음을 알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한인회간부및 이상훈 총영사등80여명이 모였다.

(관련기사 2면)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교민들.

# 철야기도 주부 사망

## 차안에서 기도자세로 발견

금요일 저녁 철야기도에 나섰던 주부가 자동차 안에서 기도중 사망했다.

에그린턴×웨스톤근처에서 버라이어티 상점을 경영하는 함태산씨는 3일 아침 8시께 차고안에둔 차안에 부인 김영자씨(37)가숨져있는것을 발견, 경찰에신고했다.

함씨에 의하면 부인김씨는 전날(2일)밤11시께 "허리가 아프니 오늘밤 철야기도는 집에서 하자"고 말하면서 혼자 차고로 들어갔고, 함씨는 부인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혼자 침실에 들었다.

이들부부는 금요일 밤마다 모 전도사가 운영하는 기도원에 가서 철야기도를 해왔다.

함씨는 새벽2시 부인이 옆에 없는것을 알았으나기도하고 있는줄로 생각, 아침까지 찾지않았다.

부인은 캐딜락 뒷좌석에 무릎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로 발견됐다.

이들이 사는집은 상점에 붙어있으며, 차고는 따로떨어져 있다.

함씨는 부인이 밤중에추워서 차의 히팅을 켰을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밴트럭도 운전하는 김씨는차고안에서 엔진을 켜면 치명적 개스가 차안에 스며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차 열쇠도 갖고 있지 않았다.

김씨는 3딸을 두었으며 건강하고「똑똑한 여자」로 소문나 있었다.

함씨는 토론토 한인사회의 원로급 유지 함필용옹의 4남이다.

경찰은 김씨의 사인이심장마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4일밤 11시 사건을일단 종결, 장례를 지내도록 가족에게 통고했다.

이에따라 6일밤 8시 최상봉목사(벧엘교회)담당으로 대예배가 와드(Ward)장의사(2035 웨스톤·로드, 401 1마일 남쪽)에서 열린다.

장례식은 7일아침 10시 같은 장소에서 최목사 집전으로 거행된다.

# MX미사일 배치 B-1폭격기 개발

〈워싱턴－AP〉 로널드·레건대통령은 2일 드디어 이동식 MX미사일 1백기를 실전배치키로했다고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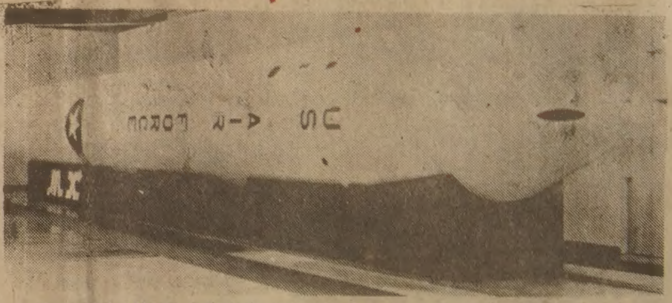
레건대통령은 미리 예고한 중대발표를 통해 MX미사일 1백기를 실전에 배치키로 했다고 발표하고 소련의 계속되는 군비증가에 대비, MX미사일배치와 함께 B－1폭격기의 신형개발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레건대통령이 발표한 군사계획에 따르면 MX미사일은 오는 1984년까지 배치를 완료하고 신형 B－1폭격기는 1986년까지 전투비행대를 구성케 돼 있다.

신형수중발사미사일 트라이덴트Ⅱ도 오는 1989년까지 실전배치할 예정이다.

레건대통령은 이번 군사계획은 소련군비증강에 대한 미국의 당면과제일뿐만 아니라 다음세기를 위해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전문가들은 이같은 레건대통령의 강력한 국방정책에 대해『미국은 그동안 동등내지 약세를 보여온 대소군사균형을 미국의 우위로 바꾸려고 하는것』이며『미국의 군사적우위가 없이는 소련의 팽창정책을 막을수 없는것』이라면서 이를 환영했다.




◇이것이 MX미사일이다－2일 레건대통령이 정식으로 배치를 결정한 다탄두 이동미사일.〈UPI〉

# 테니스, 태권도 7명 파견

## 캐나다 선수단 4일 출발

서울서 개최되는 제62회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캐나다 대표단 선수7, 임원9명이 4일 토론토를 출발했다.

테니스4명 태권도 3명으로 구성한 이번 선수단은 승리보다 참가에 의의를 둔것 같다. 예년에는 축구, 펜싱등도 참가했으나 선수들의 개인사정으로 구성을 하지 못했다.

4일 토론토 국제공항을 출발한 이병권 단장은 "준비가 여의치 못해 많은 선수를 데려가지 못한것이유감이다"고 말했다.

10월25일 귀환예정인 선수단은 $17,000달러의 자체예산과 약100만원의 한국정부보조금으로 이번 체전에 참가하게 됐다.

선수단 임원과 선수는 다음과 같다.

◇임 원

단 장:이 병 권 (대한체육회 「캐」지부장)
부단장:김 만 구 (동부이사장)
부단장:심 재 환 (동고문)
감 독:강 준 남 (사무장)
총 무:배 용 문 (기획실장)
섭 외:유 용 근 (섭외부장)

◇선 수

테니스:김가별 데이빗 윤 이건영 정창조
태권도:손명철 유용준 민태구

교민의 벗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4－1129
534－1120
584 BLOOR ST.W.
(Bloor & Bathurs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제 3주년 기념특별 세일봉사"
교민들께 염가로 할인봉사

Rasan Galleries LTD.

동양의 멋이 담긴 고급가구, 앤틱,
선물용품을 구비하고 있읍니다.
교포 여러분께는 20%
할인 해드립니다. 언제나 20%

* 취급품목
● 북경장미목 가구, Cabenet, Screen, Antigue가구.
● 북경 칠보공예품( Cloisonneware) 및 상아(IVORY), Jade조각품
● 각종 북경보석품(금, 은)
● 중국, 일본 골통품및 동양화
● Hand Painted Ceramic.
● 이조가구 복제품및 한국병풍

444 YONGE ST.
COLLEGE PARK SHOPS
595－0836

220 YONGE ST.
EATON CENTRE
"THE MEWS" 4 LEVEL
593－4208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5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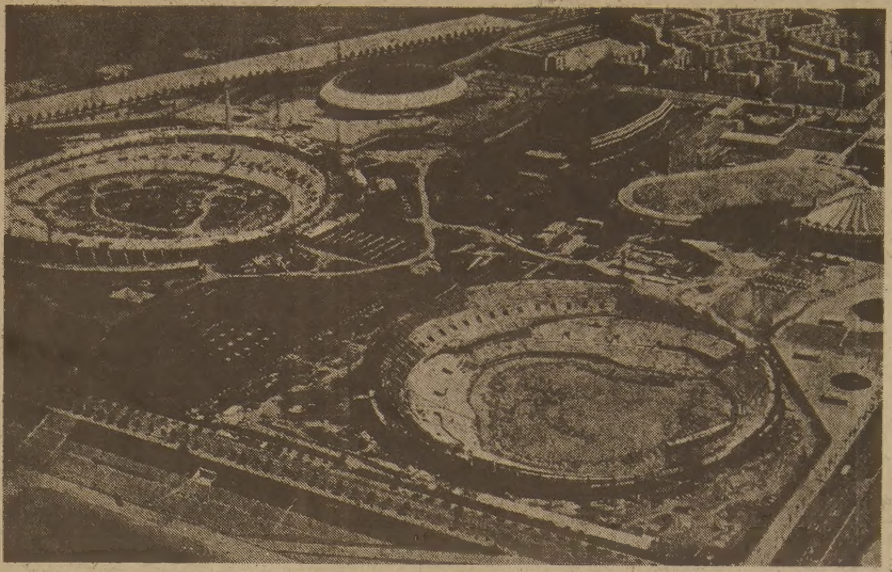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M5S

# 꿈의 5륜… 잠실에 웅지를 편다

## 22억달러 투입 동양최대

### 예산의 70%는 지하철건설및 도로확장
### 공산권과의 외교의 벽 허물수있는 기회



**蠶室 종합운동장의 위용** 選村洞일원에 건설될 국립경기장과 함께 88년도 서울올림픽의 제2경기장으로쓰일 蠶室의 서울종합운동장의위용。16만5천평에 9백13억원을들여 메인스타디움,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야구장, 학생체육관등이 이미 완공 또는 건설중이다。

### 「世界는 하나…스포츠로 마음을트자」

◇… 서울이냐, 나고야냐, 그 판가름이 드디어났다. 한국은 앞으로 7년후인88…◇
◇…년 서울올림픽을 위해 22억8천2백만달러의 예산을 책정하고 또 올림픽 선…◇
◇…수촌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일대를 후보지로 정했다. 또 이일대의 77만평이…◇
◇…국립경기장이 되며 이곳의 오금동, 성래동, 우동, 방이동등 4개동이 경기…◇
◇…장 건설부지로 기획됐다. …◇

〈서울本社 국제電話〉

메인경기장으로 쓰여질 잠실 서울대운동장은 오는 85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며 이곳에 궁도, 사이클, 역도, 체조등 경기장시설이 부설된다.

한편 선수촌에는 남자선수촌, 여자선수촌, 임원관계자숙소, 프레스센터, 병원, 은행, 쇼핑센터등이 들어서게 되며 서내와 선수촌을 연결하는 지하철을 설계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범주를 떠나 범국가적인 사업으로 벌이는 서울올림픽 예산의 70%는 지하철건설, 도로확장및 정비등 공공사업비에 쓰이고 나머지 7억달러 정도가 강동구성내2동에 세워질 80만평 올림픽촌 건설비등 경기시설비및 대회운영비에 쓰인다. 지난해 모스크바·올림픽예산이 40억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여건이 단단함을 알수있다.

1년예산의 5분의1(81년기준)에 해당하는 막대한 예산으로 인해 서울시민들은 세금부담이 81년액수의 평균 두배가량 늘어나 허리띠를 졸라매야하지만 공공시설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

올림픽개최에 따른 스포츠진흥은 물론이고 외교적인 면과 산업전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뒤따르는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종합국제대회를 열어본적이 없는 한국에서 올림픽과 같은 대제전을 훌륭히 치러낼수 있을까, 호스터·컨추트리로서 부끄럽지 않을만큼 어느정도의 성적을 올릴수 있을까, 특히 메인 스타디움에서 한번이라도 대극기를 올려볼수 있을까…등등의 우려를 하는 사람도 없지않다. 시설미비나 운영미스로 말썽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거나 금메달하나 못따내는 망신을 당한다면 오히려 대회를 끌어들이지 않으니만 못한것이다.

그러나 이런 기우때문에 망설일수는 없다. 앞으로 7년후면 국제정치의 양상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한국의 경제력과 문화수준은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86년 아시아경기를 열게되면 경기운영의 충분한 경험을 쌓을수 있으며 이제부터 착실한 훈련을 거듭할 경우 종목에 따라 세계정상권으로 발돋움할수 있을 것이다.

마라톤에서 입상을 하고 복싱에서 사상첫 금메달리스트가 탄생하고 배구나 농구또는 앞으로 올림픽 종목에 채택가될지도 모르는 탁구등 구기종목에서 정상대결을 벌일 가능성을 기대해볼만도 하다.

어떻든 올림픽이 열리면 고도성장으로 세계의 이목을 모으고 있는 한국의 이미지가 더욱 강해질것은 물론이거니 과거 동경올림픽을 연 일본의 경우가 그랬듯이 한국 스포츠는 10년 또는 20년을 앞당기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것이 분명하다.

소련 중공등 공산권에서 참가할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은 없으나 능동적인 외교노력에 따라, 또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공산권·비동맹국의 두터운 벽을 허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1백50여개국의 회의대표와 1백20여개국의 선수단이 서울에 모여 역사적인 인류의 대제전을 펼치게 되는 것이다.

## 「상점경영의 묘미」 (8)

로스만 경영연구소

피터테사

### 부채와 비용

상점경영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비싼 비용은 돈을 빌려쓰는 것이다. 이자율은 아직도 높고(우대금리 20.25%) 이 금리가 당장 떨어질 것이라는 보장도없다.

이 고금리가 경영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간단히 말해서 상점을 설립할때 돈을 20%의 이자로 빌렸다고 가정하고 1달러짜리 상품에 25%의 이윤(Mark-up)을 붙인다면 가격은 $1,25이 되지만 이것은 성공적인 경영이 못될 것이다.

부채없는 경영주는 하나도 없을것이다.

경기가 한창 좋을 때는, 현금이 오히려 부족할 것이다. 왜냐하면 물건을 자꾸 사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바로 부채의 조건을 따져야 한다. 언제? 얼마나? 어떻게? 빌려야 하는가 하는 것이 관권이다.

돈을 빌리는방법은 은행원과 상의해야되나 필요치않은 돈을 빌리는 것은 더욱 우둔한 것이다.

어떤 조건이 가장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만약 새로 시작한 상점이라면 기간을 길게잡아 조금씩 갚아나가는 것이 좋고, 기성상점 이라면 단기간으로 하는것이 이자비용등을 줄일 수 있다.

끝으로 상점경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계획과 충분한 준비를 갖추라는 것이다. 물론 계획과 준비에는 충분한 시간적여유를 두어야 한다. (끝)

## 카나다 탄광합작투자
## 포항제철·컬럼비아社

〈서울-UPI〉 한국의 포항제철은 카나다 탄광을 합작으로 개발할것이라고 정부관리가 지난 30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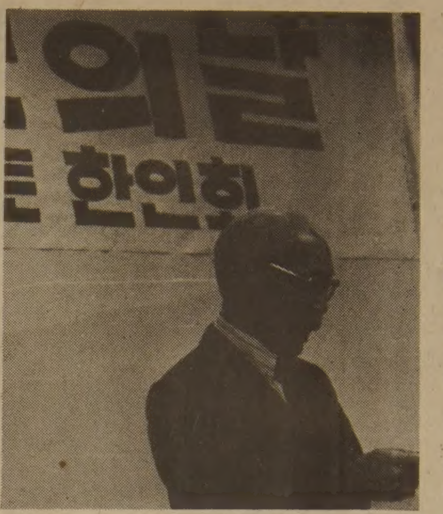
1982년 부터 20년간의 계약기간동안 포항제철은 브리티쉬·컬럼비아 탄광회사와 20대80의 공동투자로 그린힐스탄광을 개발한다고 당국자가 밝혔다.

이계약은 연간 2백만톤의 무연탄을 개발키 위해 83년까지 1억9천만불을 양국회사가 투자하는데 이중 이익의 25%를 포항제철이 갖는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 「한인의 날」 기념사

(노년회원) 함 필 용



◇함필용씨

여러분, 오날은「한인의날」이랍니다.

고국을 떠나 이역만리타국에 이민온 우리들이 조국의 명칭을 붙이고 "한인의 날"이라는(Korean Heritage Day)"새로운 이름으로 우리의 힘과 성의로 어떤 행사든지 거행하면서우리는 오랜 역사와 빛나는 문화전통을 가진 문화인임을 타국민에게 과시하는동시에, 교포간에 친목을 더하며, 이날을 즐길수있게된 것은 축하할만한 일입니다.

또한 이날 10월3일은 단군이 건국하신(개천절) 로서 이 두날을 함하여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바 LA에서는 얼마전에 교포전부가 합동하여 큰 퍼레이드를 가지고 한국민족의 존재와 그 능력을 일반에게 인상깊게 보여주었다고 영자신문에 보도 되었읍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올시다.

장차 토론토에서도 우리한인회가 그러한 행사를주최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고독을제일많이 느끼는 동물중의하나라고 합니다. 더우기 이민생활은 정말로 고독한것입니다.

언어의 장벽과 교통의 불편은 더욱 친구와의 거리를 멀게합니다. 그래서 자연히 친구와 동지를 갈망하여 찾게됩니다.

그러나 다른사람보다 자기를 먼저 찾아보아야 될줄로 압니다. 내가 신용을 지킬줄아는 인간인가? 모든일에 성실한가? 다른 사람, 민족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려고노력한다면 자연히 친구와동지가 생길줄 믿습니다.

최근 트루도 수상이 한국을 방문하여 고위당국과 양국의 관심사를 논의하고 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치적 경제적문제가 캐네디안들에게 클로즈업되었고, 우리 교민들의 이메지도 향상 되리라고봅니다. 그래서 저들은 우리의 모든일을 관심깊게 보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중하여 신의와 덕으로 저들과교제한다면 우리 이민생활의앞길은 더욱 평탄하며, 빛나게 될 것이라고 믿어 경축사를 겸하여 저의 소신을 말씀드렸 읍니다.

교민의 벗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 낙 서 (1)

〈수 상〉

홍 기 만

어쩌면 시인들이 가장 많이 노래한 계절이 가을인지도 모른다. 원색(原色)의 바다와 강렬한 태양의 볕이 서서히 퇴색(退色)해 버리는 계절.

경향파 계열의 대표적 시인이었던 임화(林和)는「감이 붉게 익은 시골의 가을하늘은 노을보다도 곱다」고 노래했었다.

가을. 가을에는 냄새가 있다. 이른아침의 가을냄새는 독특하다. 그것은 맑은 아침공기와는 다르다. 가로수 있는 거리에 나서면 가을의 냄새가 온 몸에 스민다. 가을냄새에 흠뻑 취해보는 것이다.

하지만 가을은 느끼는 것. 애듯한 낭만과 감상(感傷)에 젖는 계절이다.

흩날리는 낙엽, 우러르면 파아란, 끝없이 파아랗게 보이는 투명한 하늘, 귀뚜라미의 가냘픈 소리, 흐르는 냇물에 차가와 보이는 달이 흔들리고, 갈대 잎사귀가 하늘거리는 애조(哀調)—.

이것은 먼 옛날 고국의 이야기다. 지금의 이민도시생활에는 도시 이러한 감상을 노래하고, 가을의 멋을 새길 겨를이 없다.

요즘의 어린이 들에게는 동화가 없다. 동화란 그들에게 한낱 어색한 이야기일 뿐이다. 잃어버린 동화처럼이제는까마아득한 추억뿐인 가을 속에 추수감사절을 맞는다. 가을은 낭만과 더불어 수확의 계절이기도 하다.

이곳 캐나다의 가을이 보인다.

여름이 너무 짧다고 아쉬워들 하며 바쁜 생활 속에 틈틈이 태양과 호수를 찾다 보면 벌써 가을이다. 불붙는 단풍, 섬기에는 너무나 탐스러운 햇볕에 빛나는 빨간사과, 감상 보다는 공해를 연상시키는 엄청난 낙엽—.

시각에 담기는 가을 풍경이 있을 뿐, 계절적인 감각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것이 이곳의 가을인가 보다.

마치 한국의 11월, 우울하고 을씨년스럽기만한 기후가 잠시 계속되는가 하면, 어느새 흰 눈발이 흩날리니 말이다. 그래서 이네들은 10월의 마지막 월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삼던 것을 1957년부터 제2월요일로 앞당겨 제정한 이유 인지도 모른다.

나로선 이제 아홉번째 맞는 추수감사절. 신앙이란 저만치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던 나에게 자꾸만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심정이 치밀어 오른다. 1619년12월4일 지금의 버지니아주 제임스강변에 정착한 39명의 영국인들이 통나무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첫낟알을 거두어 들이고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지금의 나의 심정은 계절의 탓만은 아닌 것 같다.

거대한 북미대륙 이라는 이민의 용광로 속에 조금은 용해되었기에 그런 것도 아니다. 견디기에는 너무나 잔인스러웠던 이민초기의 정신적인 고통을 그래도 감당해 냈고, 이제 조금은 생활이 나아졌기에 그런 것은 더욱 아니다. 결코 체계화된 이론만으로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어지는 신앙의 계기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더우기 「변증법적 유물론」이란 어휘를 자주 귀에 담는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이면 한결 더하리라.

가을과 함께 일요일이면 교리강습에 나간다. L선생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쩌면 그리도 마음에 짤라는지 모르겠다. 교리강습 시간의 그는 그저 담담하고 비길데 없이 무표정 하다. 거기에서 나는 시를 읽는다. 그림을 본다. 그리고 번뜩이는 철학을 듣는다. 문득 학창시절을 연상시켜 준다. 그러기에 이러한 실없는 낙서를 하는지 모른다.

가을내음이 몸에 스민다. 가을이 보인다. 가을이 들린다. 하지만 정녕 가을은 느끼는 것. 애틋한 낭만과 감상과 고독, 그리고 애조가 있는 가을은 멀리 두고 온 고국에서도 이제는 잃어버린지 오랬을 것이다.

이번 주말은 가을을 찾아 어디론가 멀리 떠나야겠다.

(필자 : 한국시절 소설가 최정희씨 추천으로 「현대문학」추천완료 작가).

## 축소판 세계일주 한맘노인회 소풍

토론토한인천주교회의한맘노인회(회장 김성근)는 오는 17일(토)가을소풍을 실시한다.

이날 상오9시 던다스성당 출발, 세인트·캐서린 외 미니에이춰·월드(축소판세계일주)를 관광한다. (참가비 $8)

한편 동노년회는 지난주일(4일)정기월례회중 신복균 박사의 노년복지등문제를 다룬 강연을 들었다.

— 바로잡음 —

5일 본보「금주의 행사」란의 한인친선탁구대회 연락처 992—9435를 922—9435로 바로잡음.

중앙 AUTO
-SERVICE
• TUNE UP
• SAFTY INSPECTION CERTIFY
•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TOR
532-3946 길창세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서 울 식 품
I. 싱싱한 민어회감 있읍니다.
I. 한국에서 직 수입하므로 싼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VIDEO AMUSEMENTS OF CANADA
전자 오락기계
(게임·머쉰) VIDEO GAMES
—판매및 렌트
—투자없이 이익을 배분하는 방법
—여러종류의 머쉰을 주기적으로 교환
—신속한 에프터 써비스(고장·수리)
※이익금으로 스토아 렌트해결보장
임 경 진 273—5323
MANUFACTURER'S OF COIN OPERATED.

토론토시
추수감사절(월) 1981년10월12일
쓰레기 수거 변경일
수거일 (화) 10월13일 1981년
(수) 10월14일 1981년
신문지및 부피있는 물품은 10월14일(수)에는 수거치 않읍니다.
10월21일(수)까지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토론토에는 19군데의 병과 쇠붙이 등을 재생시키는 장소가 있읍니다. 더 이상의 사항을 아시고자 원하시는 분은 전화 : 367—7742로 문의 바랍니다.
R. M. BREMNER
P. Eng., F.I.C.E.
건설국장

# 침대선택의 요령

## —가구중 신체 많이 접하고 장시간 이용—

### 용도·신체·사용자에따라 선택에 신중을
### 「시몬즈」침대는 1천3백여 스프링이작동
### 비싼것보다는 사용자의 편리에따른선택

교포들중 가구점에 들를때 가격이 높은 것만이 최상품으로 생각하고 고르는 수가 있다.

물론 가격과 품질은 비례하는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그러나 이같은 원칙은 어느 경우든지 다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

가구중에서 침대는 우리들이 자동차에게 관심 있듯이 가정생활중의 가장 중심적인 가구이다.

침대는 수면에 절대적인 필요가구임은 미국생활에서 누구나가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같은 침대는 무엇보다도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이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왜냐하면 인간이 사용하는 가구중에서 신체면이 가장 많이 접하고 오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침대이다.

따라서 침대는 인간건강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침대를 고를때는 우선 사용하는 사람의 조건이 필요하다.

즉 부부가 사용하는가 독신자가 사용하는가 그리고 자녀들이 사용하는것 등으로 나누어 질 수가 있다.

다음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몸무게와 키를 고려하여 역학적으로 알맞는 침대를 선정해야 하는것이다.

무슨 침대(보통 매트리스로 불리는것)가 좋은 것이냐 하는 문제는 얼마나 탄력있는 스프링으로 동일면적에 얼마 만큼 많은 스프링작동장치로 설계 되었는가에 기준을 둘수 있다.

침대를 선정할 때 척추나 기타 신체구조에 이상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에 적정한 매트리스를 골라야 할 것이다.

침대매트리스의 중요성과 함께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베드 프레임이다.

보통 프레임을 받치는 바퀴가 4개와 6개로 나누어 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부용 매트리스는 6개 바퀴가 설치된 베드 프레임이어야 탄력을 유지할 수 있다.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미국침대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시몬즈」(SIMMONS)가 고급주택과 고급호텔에서 애용하는 이유가 바로 1천3백30개의 (KING SIZE BED)스프링이 하나하나씩 작동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소비자들이 이해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시몬즈」제품에는 정규제품(REGULAR ITEM)과 세일용제품(SALE ITEM)이 있다는 것이다.

보통 세일용제품에는 정규제품보다 스프링설치 수에 있어서 약20%정도 부족한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하여간 침대를 선정할 때는 비싼 것만을 찾는 것보다 사용자의 편리에 따라서 정해져야 한다.

또하나 아무리 최상의 매트리스라도 10년이상 사용하면 무리가 가게 마련이다.

따라서 침대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건강유지에도 필요하다.

▲침대는 값비싼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체조건에 맞아야 한다.

# 두女人의 旅路

새映画

▲도미니크·산다의 강렬한 연기가 인상적이다.

## 餘韻남기는 性과 사랑의 권태

삶에 있어 성과 사랑과 권태는 성숙한 여인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미셸·드비유감독은 VOYAGE EN DOUCE(두여인의 여로)에서 이 문제를 30대 전후의 두여인을 통해 때론 과감히 때론 나태하게 조명해 간다. 결코 결론을 내리지 않은채.

남편과 결혼생활 그리고 맛없는 섹스에 실망한 엘렌(도미니크·산다)과 루시(제랄딘·채플린). 엘렌은 어느날 갑자기 휴가중 묵을 집을 찾아나서기로 하고 동행할 것에 응한 루시와 함께 집을 나선다. 목적지로 향하는 차안에서, 여관에서 그리고 집을 찾아다니며 두여인은 동경과 상상과 사실을 뒤섞어 가며 성을 낱낱이 토해낸다.

강간, 동성연애, 동물과의 성희와 젖가슴과 나신, 웃위로 행해지는 자위행위에 이르기까지 엘렌과 루시는 집요하게 성을 추구한다. 이 집요함은 성 앞에서의 인간의 무기력까지 느끼도록 강렬하다.

성을 통해 존재를 확인해 보려는 두 여인이 돌아온 곳은 다시 각자의 가정. 엘렌이 TV에 열중한 남편을 남기고 집을 빠져 나가려다 문앞에 무너지듯 앉으며 끝나는 이 영화가 말해주는 것은「쎄라비(그것이 인생)」(?).

지성의 대리석을 쪼아 만든 것 같은 아름다운 산다의 무표정하고 권태로우면서 쏘는듯이 강렬한 연기가 어려운 문제를 묘사, 난해할것 같은 이 영화를 몸 가까이 느끼게 만들었다.

## 「TV한국」 금주프로

모국 가수들의 대중가요"10분쇼", 일요극장 "마른자리"(주연 : 이순재·안옥희)그밖에 주간뉴스

◇MTV(채널 47, 케이블4)
10월8일(목) 낮12시부터 30분간
10월9일(금)밤11시부터 30분간

◇로저스 케이블방송(채널28, 토론토 다운타운 일대만 시청가능)
매주 화요일 밤10시30분~11시,
매주 금요일 저녁7시30분~8시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선금)연 $90, 월$8,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416) 533—2361~4

광고는 사업을 번창시킵니다
문의처
본사 광고국
533—2361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매일연재 소설〉

#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⑦①

팔리·모왓 원작, 원 재 훈 옮김

또한번은 어느날 그와어린애들에 관해서 얘기를하면서 이할미우트 애들은어른이 몹시 성이 났을때도 전혀 얻어맞지 않고있다고 나는 말했다.

나는 보통으로 얘기를했는데, 어린애가 어째서 맞아서는 절대 안되는 이유를 내가 왜 모르는지 어리둥절 해가지고 격렬하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어느미친 사람이 자기의 핏줄을 타고난 아이에게 손을들겠소?"또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힘이세다고 약한 어린애를 때리겠소?"하고 되묻는 것이었다.

"나는 미친놈이 아니고, 하우먹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똑똑히 알라구요!" 그의 목소리는 나를 경멸하는것 같아서 그 뒤로는 그문제를 절대로 입에올리지 않았다. 그래서 아이들은 스스로 억제하는것 이외에는 아주 자유로웠다.

아이들은 세계 어느곳에 사는 아이들이나 마찬가지로 행동했다.

태어난지 3년동안은 젖을먹이고, 젖을뗄때 쯤은벌써 생활의 대개의 습관은 알게된다. 5살이된 쿠니가 여자로서 무엇을 해야된다는것을 전혀 배우지 않았어도 이미 여성이 할일을 알고 있었다는것은 이야기가 되었다.

쿠니는 다른아이들처럼 관찰력이 예민하고, 남이하는것을 모방했을 따름이었다.

어린애들은 역시 노는것이 일과이다. 저녁에 어른들이 침낭에서 자거나 쉬고 있을때, 새벽까지 자지않고 국남비에 계속 불을 지피고 국을끓여도 아무도 어린애들을 꾸짖지 않는다. 애들한테는 전혀 간섭이나 일정된 훈련도없다. 졸리면 자고, 배가고플때 먹을것이 있으면 언제나 먹는다. 또 놀고싶을때 말리거나 심부름도 시키지않고, 말이나 훈련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놀면서 더많은것을 배우게 된다.

예를들어, 열살먹은애가 밤에 갑자기 사냥꾼이 되겠다고 하면, 그의 바보같은 생각때문에 꾸지람을받거나 부루퉁하게 잠자리로 보낸다든가, 또는 부모들이 애를 달래지도 않는다.

반대로 애아버지는 아이에 알맞게 작게줄인 훌륭한 활을만들어 준비하느라고 밤 늦게까지 깨어있다.

정성을들여 활을 만들어 아이에게 주면 동네밖의산등성이로 올라가 사냥을한다. 정성을 들여만든 활을 아이에게 주면 캠프에서백야드 떨어진 산으로 올라가 사냥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을에서 사냥을가장 잘하는 사냥꾼이 사향소를 잡으러 2개월이 걸리는 사냥길에 오를때 동네사람들이 행운을 비는 말을 하듯이 이작은 아이의 귀에대고 행운의 말을 속삭인다. 거기에는 어린애라고해서 차별이 없다.

애가 사냥꾼이될 소질이 있는지? 그렇다면 좋다. 그는 장난감 활을갖고 노는 어린애가 아니라 정말 사냥꾼이 될 것이다. 만일어린애가 용감하면 저녁과새벽사이의 여름철 황혼이계속되는"시간에 골짜기와산위를 샅샅이 뒤지며 사냥감을 찾을것이다.

어린애가 배고파 지쳐서 돌아오면 아버지는 어린애가 마치 자기아버지나 되는것처럼 정중하게 맞아준다.

온 동네는 어린애가 무엇을 잡아왔는지 알고싶어서 모여든다.

빈손으로 돌아왔으면조롱을 당하지만, 만일 작은 새라도 잡아오면 어른들이 큰 사냥감을 잡아온 것이나 다름없이 칭찬을 받게된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의 반대나 어떤 두려움도 느끼지 않고 뛰어놀고, 배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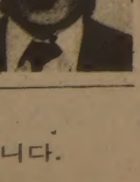
여름 저녁때는 가장 즐거운 시간이다. 들녘으로 사냥을 나갔던 사람이나, 새로운 카약을 만들던 사람이나, 혹은 빠른 강물에서 창으로 송어를잡던 사람들까지 모두 돌아와서저녁을 먹고나면 버드나무가지로 모닥불을 피워놓고옆에 잠을잘수 있도록 깔개를 깔아놓고 늙은이들을잘 모신다. 남자들과 부인들이 낮에 일어났던일을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든다.

아트날릭은 오늘 처음으로배운 실뜨게질을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보여주어야 한다. 그는 더듬거리다가 실이 얽히자 그의 쩔쩔매는 꼴을보고 모두들 "와아!"하고 웃어 젖힌다. 모두들 긴 사슴심줄을 들고나와 함께 즐긴다.

모닥불 주위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뜨게질로 남녀노소 할것없이 게임을한다.

(계속)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GM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BRITANNICA

BRITANICA 3
대형백과사전(전30권)
GREAT BOOKS
세계문학전집(전54권)
400달러 할인
●특히, 학자, 학생, 사업가, 부모들을 위해 30만종 이상의 각 방면에 관한 자료를 무료로 제공함.
오후5시 이후 신 용 목 배
●교인, 학교 각 단체회원에게 특별할인
●타 백과사전 소지자께 특별할인
●소년용, 아동용 백과사전도 있음
문의처 : 536—9082(B), 245—7522(R)

海 記 飯 店
HOI KEE REST.
— 싱싱하고 맛있는 —
달팽이 요리, 게 요리,
가재 요리, 조개 요리
한국인의 입맛에 꼭 맞는 진미
중국요리
가게가 끝나신후 꼭 들려 주세요
새벽6시까지 영업합니다
영 업 일 : 월요일~일요일
영업시간 : 오전11시반~새벽6시까지
※이 광고를 갖고오십시오.
10% 할인
133 DUNDAS ST. W
TEL. 977—3441
海 記 飯 店

아직도 작년값으로 팝니다
밍크
털오바를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털 오바◆
새 진열장을 갖추고 고객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털코트, 자켓, 모자, 스톨, 털목도리등
BIG SAVINGS NOW!
●영업시간
: MON. TUES. WED. SAT. 9 : 30—6 : 00
THURS. FRI. 9 : 30—9 : 00
●신품 : $99이상 ●중고품 : $ 00이상
202 SPADINA AVE.
MRS. PARK
☎ : 363—6077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 한국안내광고

THE KOREA TIMES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색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 구 인

밤11시 이후 호텔에서 청소하실분 구함
오후2시 이후 연락바람
☎ : 425-1836 MR. 정

웨이터1명, 웨이트레스1명
626, 628 BLOOR ST. W

입주하셔서 애기 봐주실분구함
미세스 김
☎ : 755-1746

주일에 가게에서 일할 경험있는
파타임 학생헬퍼 구합니다.
☎ 267-4770

맥스밀크에서 일할 캐쉬어 구함
주3일
☎ 244-5248, MRS. THOMAIDIS

도나스 가게 헬퍼구함 : 남자20세~40세정도 오전5시부터,
여자캐쉬어 오전8시~오후4시
☎ : 481-3677(오후1시~4시사이) 미스타 박

공장에서 생산부분에 경험있는 분 구함 :
직접 내방 바람.
DORCHESTER ELECTRONIC
40 FINA CRES.
(QEW & 427 AREA)

도나스 가게에서 5일간 밤일하실 풀타임
일할 여자분 구함(밤11시~아침9시)
☎ : 284-9325 스카보로지역

DRESS MAKER : 경험있는 FULL TIME
미싱사 구함(GOOD PAY)
☎ 368-2819 미스타 왕

스토아 파타임헬퍼구함(남자분)
스카보로지역
☎ : 267-0847

야채가게에서
파타임으로 일하실분 구함
☎ 690-6572

**ROBERTSON MOTORS(G. M.)**
올스모빌·시보레 딜러
한국인 자동차 세일즈 맨 구함
● 경험이 없을시는 트레이닝이 가능함.
● 주100달러(차 판매에 관계없이)지급.
● 자세한 내용은 General Manager Bob Walsh 에게 문의바람. ☎ : 466-1131

재봉사(SERGERS)구함
COROMATION DRESS. LTD.
49 SPANIDA AVE. 4th FLOOR.
☎ : 367-1414

두 아이와 가사일 도울분 구함 :
오후6시~9시 연락바람
☎ : 439-0825 미세스 최

## 매매및 양도

매매 : ● 도나스 캐비넷 셋트
●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트랑15년 리스
☎ 535-2804 미세스 김

성업중인 햄버거 샾 팝니다
☎ : 530-0748 DAVID

**전화 후렌치 스토아 매매**
당신의 것으로 할 수 있는 전국에 걸쳐있는 전화 후렌치 스토아에 흥미가지신분 구함.
좋은 이익을 볼 수 있음. 투자액 35,000~60,000달러 (모든경비 포함) MR. MONK
☎ : 445-7974 1875 Leslie Ave. unit 18

그로서리 스토아 급매
주매상 $3000, 렌트 $300, ASKING $10000,
MACHINE과외수입$800. 2층 살림집있음
☎ : 1-387-3983

**매 매**
365일 컨비니언스 버라이어티 스토아
PARKING하기 쉬운 매인스트릿 에 위치, 시설완비 되있음. 다운페이 $20000에 단돈 $39500의 좋은 기회 L. VAN LIESHOUT R. E. LTD.
☎ : B) 705-457-2414,
705-457-2460 (Mike)
705-457-2071(Larry)
Haliburton Ont.

**매 매**
그로서리 버라이어티 좋은 이윤과 장소,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자함.
100 CAVELL AVE. MIMICO

이주관게로 가구 팝니다 :
가구일체, 피아노, 플루트등
☎ : 241-6733

개인 하드웨어 스토아 매매
(PRIVATE HARDWARE STORE FOR SALE)
좋은 자리에 있음. ASKING $41,000.
더 문의 하실분은 791-8771. 9시에서 6시(월~토)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ALL)
☎ : 791-8771 해밀톤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5000+로타리오 머신+우체국 주인이 은퇴하므로 팔고자 함. 엘스미어 로드(토론토)
☎ : 889-6555 Mr. LISS(브로커)
오후6시 이후 전화요망 영어로 문의할 것.

매매 : 성업중인 드라이크리닝
PICK-UP가게 매매
☎ : 690-3256.

T. V. 스테레오 취급전문 :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 $7만+스탁
☎ : 533-2400 미스타 김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 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 849-0959, 7374~6

일본식 식당과 SHOGUN라운지 매매 :
일본식 식당 : 85좌석, 라운지 : 105좌석,
모든 시설이 완비되었으며 개업한지 3개월 되었음.
동업자나 사실분은 Correct Call로 연락바람.
HALIFAX, N. S.
☎ : 집(902) 443-5789, 식당 : (902) 429-6155
라운지 : (902) 429-6955. MR. KIM

**CHINA SHOP**
건강상 이유로 매각코자함, 가격절하 Royal Doulton 프랜챠이즈 상점임. 미국과 거래량 많고 발전의 여지 충분. 살림집 붙어있고 하이웨이변에 위치. 린지(Lindsay)북쪽 관광지대. $85,000+스탁
MARJ TRIPP부동산회사
☎ : 1-(705) 438-3155

**가정용 DRY GOODS**
= 옷·신발류등 판매 =
상점면적 2,200 sq. ft. 고객은 나이 불문. 2 베드룸이 2개 있는 인컴 아파트. 발전하는 지역의 요지에 위치. 토론토의 북동쪽 50마일 심코호수변.
$89,900+스탁, ☎ : 1-(705) 438-3155
MARJ TRIPP 부동산회사

벡커 프렌차이스 매매 :
좋은 비지네스 직접내방원함(FINCH & BIRTCHMOUNT)(스카보로지역) 335 Glendower Circuit

DELE. 버라이어티 스토아 :
& 비지네스 세일(영어로 문의)
☎ : 535-3271

## 집·방세·하숙

방세 놓습니다 : 1 베드룸
BLOOR ST. W. 중심가
☎ : 533-0168 미스타 김

##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바우종합광고회사**
간 판 부 : 각종전광/아크릴간판, 현수막, 윈도우사인
그래픽디자인부 : 원색Catalog/Brochure/팜프렛/포스터/상업도안/신문광고디자인 제작대행
인테리어디자인부 : 일반상점실내장식, 건축설계 상담및 시공
인 쇄 부 : 특수인쇄/도서(책자)편집출판 '82년도 호화판 한국달력주문제작중
T. P. ADVERSITING GROUP
OFFICE : 637A BLOOR ST. W. TOR.(은하보석상 옆)
공 장 : 287 Horner Ave. Etobicoke.
전 화 : 535-0647, 465-1722 대표 : 송 관 헌
시외지역 전화문의및 무료출장견적 환영

## 미 용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피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타미용실 미세스·김
남녀 커트, 퍼머 전문, 9 AM~8 PM 토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헬렌미용실 미세스·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 742-0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립스미용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트러스트
☎ : (B) 752-3111, (R) 298-2546
주택전문 곽 석 용

##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조율 SOO PIANO SERVICE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 시설및 수리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상하수도 전기제품 각종유리
PAINT 수리및 시설
☎ : 535-4441 미스타 김

자동차, 유리, 실내장치 :
MOON'S AUTO TRIM & GLASS LTD.
☎ : 638-0656(B), 493-7185(R) 정 해 문

##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센츄리냉동 원종성, 이인식
☎ : 221-5441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 여 행 사

**한 국 여 행 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리 운 수

## 자동차수리

L & K AUTO COLLISION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KIPLING)

ROGERS GARAGE ☎ : 651-9324(B)
자동차 수리 일체). 226-5430(R)
20 ROGERS RD. 변 달 원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써비스
95 POR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 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 한 방 원

**서 울 한 의 원**
●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 (Kipling × 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황진합)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 진품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명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일주일, 내내 :아침10시~저녁8시 (일요일도 OPEN)
챠이나타운내(던다스×스파다이나)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뜸

##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김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21-0560 여 정 웅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함
48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 카펫·카텐

가나안카텐·카펫 브라인드 SHADE
2390 LAKESHORE BLVD. W.
☎ :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 기 타

**SINGER**
● 전화주문 받습니다. ● 모든 종류 미싱수리, ● 바느질을 배우세요. 틴·에이저와 초보자를 위한 강습이 있읍니다. ● 중고품 $49.95부터
CALL : MR. ARMAND OR PAUL (킴스카메라건너편)
☎ : 537-4881, 537-3841 620 BLOOR ST. W.

**새한칼라 현상소**
630 BLOOR ST. W. TORONTO. ☎535-7772
●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 현상, 인화, 확대

SOMÉ JEWELLERY 쏘메쎄라
● 각종보석주문(공장도가격), ● 옛보석을 새보석으로
● 데자인, 보석수리(일본말 환영) ☎ : 225-4641

**SUREKILLER**
각종벌레, 개미, 바퀴벌레 : 100% 효과보장
☎ : 368-9018

니폰·비데오 센터 :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 698-0633 하마구찌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8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숙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 촬영
○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윤 학

## 여권 분실

여권분실공고 : 윤 복 희
여권을 승용차에서 분실했읍니다
☎ : 469-1521, 463-4181 357 COXWELL AVE.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畫

"범스테드, 고킨과의 계약을 성사시키든가 아니면 자네가 해고 당하든가 둘중하나야!"
"그것은 너무 가혹한 조건입니 다요, 사장님"
"좋아, 자네가 고킨계약을 따오는가 아니면 자네가 끝장이면가 둘중하나라구!"
"사장이 내말뜻을 잘 못안것같아"

**김 인 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 한국일보 안내광고 요금안내 | | 최소 3번 | 1주 5번 |
|---|---|---|---|
| C-1(1칸) | .5"×4" | $10 | $13 |
| C-2(2칸) | 1"×4" | $20 | $26 |
| C-3(3칸) | 1.5×4" | $30 | $39 |

※안내광고중 내용을 바꿀시는
C-1 $1추가요금
C-2 $2 〃
C-3 $3 〃

문의처
본사 광고국 : 533-2361

아 십 니 까? 아십니까?
안내광고란의 위력을….
YOUR BEST DEAL
한국일보광고국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 '88올림픽 서울서 연다

## 52대27票로 나고야에 壓勝
## IOC總會、世界 豫想뒤엎고

### "서울大會때 南北單一팀 구성을"

【바덴바덴 30日=金聖佑특파원】 1988년 제24회 하계올림픽이 서울에서 열린다. 30일 제84차 IOC총회는 88년하계올림픽개최지를 한국의 서울로 확정했다. 80명의 IOC위원이 참석한 이날 총회는 비밀투표에서 서울52표, 일본의 나고야27표로 서울이 과반수를 넘어 치열한 경합을벌이던 나고야를 예상보다 훨씬큰 차로누르고 개최지로 선정되었다. 총82명의 IOC위원중 자메이카와 오스트리아의 위원 2명이 불참했고 사마란치 IOC위원장은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투표결과는 이날하오3시25분(한국시간30일 밤11시45분) 바덴바덴의 IOC본회의장인 쿠르하우스에서 전IOC위원 전국제경기연맹및 각국 국내올림픽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가운데 사마란치 IOC위원장에 의해 발표됐다. 올림픽은 88년9월20일부터 16일간 열린다.

◇最多得票에 환호 朴英秀 올림픽유치위원장이 서울의 88년도 올림픽 개최가 확정되자 손을들어 환호에 답하고 있다。바로 앞자리에 나고야 대표단이 앉아있다。【바덴바덴 30日AP電送=聯合】

### 88년 9월20일부터 16日間…冬季는 加캘거리서

88년 동계올림픽은 캐나다의 캘거리로 결정됐다.

투표결과 발표에 이어 朴英秀서울시장, 曺相鎬KOC위원장및 鄭周永서울올림픽준비위원장이 사마란치IOC위원장과 함께 올림픽주최의 약정서에 서명했다.

이날의 투표광경과 결과발표는 인공위성으로 한국과日本을 비롯, 전세계에 TV로 동시 중계됐다.

올림픽의 서울개최가 확정되자 朴英秀서울시장은 성명을 발표, 올림픽의 서울개최를 결정한 IOC위원들과 ISF(국제경기연맹) NOC(각국 국내올림픽위원회)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린후『서울시는 IOC의결정에 따라 88년까지 경기숙박을 비롯한 모든 시설이 훌륭히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며 IOC와 긴밀한 협조아래 모든 조직 운영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고『88년 서울 올림픽 개최에대한 全대통령의 깊은 관심과 서울시민, 그리고 한국국민의 적극적인 성원에 감사한다』고 인사했다.

일본측의 시바따(柴田勝治) JOC(일본올림픽위)위원장은 성명을통해『東京올림픽에 이어 아시아에서 3번째올림픽 도시로 정해진 서울시에 대해 충심으로 기쁘게생각한다. 나고야市로서는 유감스런 결과가됐지만 이것은 결정권을 가진 IOC위원들이 결정한것이므로 할수없는일이다』고 말했다. 일본의 모또야마(本山)나고야市長도 짤막한 성명을내어『서울 올림픽의 성공을빈다』고 말했다.

약정서 서명이 끝난뒤 IOC는 88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된 도시를 축하하고 탈락된 도시를 위로하는 칵테일 파티를 열었다.

한국대표단은 이어 내외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정치정세에 우려를표시하는 질문에 대해『올림픽을 위해 자유로이 출·입국할수있도록정부의 보장을받았으며 올림픽기간중에는 통행금지를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단은 한국기자들과 만나『올림픽을 서울에서 열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준 국민여러분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며『이번 서울大會땐 南北單一팀 구성을 위해 노력할것』이라고말했다.

또 대표단은『올림픽대회때까지 기다릴 것 없이 늦어도 88년 까지는 통금이 해제될 전망』이라 밝히고『한국의예상외의 압승에 대해선 IOC위원이 정치성을 고려하지 않고 올림픽 정신에 입각해 투표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이 끝난뒤『우리대표단은 한국전시관에서 샴페인을 터뜨려 승리를 자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국이 올림픽을 유치한것은 짧은시일동안의 노력의성과로서는 경이적인 업적으로 평가되고있다.

서울에서의 올림픽은 선진국외에서는 처음개최되는것으로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지위향상에 크게 이바지할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金澤濟IOC위원은『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 IOC위원들은 정의로운 입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나라에 호의를 베풀었을 뿐이다. 한국이 이제는 개발도상국이아니라 이미 선진국대열에 들어가있다고 생각하는 IOC위원들의 경의의 표시이다. IOC위원들은 한국의 올림픽개최능력에 확신을 가졌다. 우리로서는 짧은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다. 서울과 나고야의표차가 크게난것은 아시아 아프리카 南美에서 몰표가 나오고 유럽에서 많은표가 흘러왔으며 東歐에서도 2~3개국이 들어간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 사마란치 IOC委員長에 全대통령、感謝의電文보내

全斗煥 대통령은 1일 제24회 夏季올림픽의 서울개최가 결정된데 대해 謝意를 표하는 내용의 電文을 사마란치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에게 보냈다.

全대통령은 이 電文에서『국제올림픽위원회가 88년 夏季올림픽개최지로 서울을 압도적多數票로 선정한데 대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대한민국 국민과 정부를 대표해 본인은 위원장및 이번총회에 참석한 모든나라대표들에게 貴위원회와 협조하여 올림픽이 상징하는 모든나라간의 평화와 友誼의 정신및 올림픽경기의 성공을 확실히 하기위해 최선을 다할것을 다시한번 다짐한다』고 밝혔다.

### 誘致團員에도 祝電

全斗煥 대통령은 30일 밤 88년도 하계올림픽 서울유치 결정 소식을듣고 유치단장인 朴英秀 서울시장을비롯한 단원일동에게 축하전문을 보냈다.

全대통령은 이 전문에서『대표단 전원이 혼연일체가 돼 선전하여 88년하계올림픽을 서울에서 개최하게 된데 대해 경하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 擧國올림픽對策委구성
### 政務제3長官이 專擔방안도

정부는 88년도올림픽의 서울개최가 확정됨에따라 서울올림픽이 시설과 각종준비면에서 올림픽史上 가장완벽하고 성공적인대회가되도록 汎國民的으로 참여하는 기구의 구성을 추진할방침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올림픽誘致團이 西獨의바덴바덴에서 귀국하는대로 우선IOC(國際올림픽위원회)의규정에따라 올림픽組織委員會(OOC)를 구성하는한편 가까운 시일안에 올림픽組織委의 활동을 뒷받침할 올림픽對策委員會의 구성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인것으로 1일 알려졌다.

1일 정부의 한고위관계자는『88년 서울올림픽 대회는 80년대 한국의 세계跳躍을과시하고 세계평화와 번영을위한 우리의 노력을 알리는 역사적 祭典인 점을감안,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인대회가 되도록 對策委를 汎국민적인 기구로 구성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부는 올림픽대책과 각종준비기획을 專擔할 정부각료를 두고 필요할경우 체육관계부서를 獨立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게 될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법에는 3명의 정무장관을 두게돼있는데 현재 정무1、2장관만이 임명돼있어 정무제3장관을 임명해 올림픽을 전담케하는 방안도 논의될것으로 보인다.

올림픽組織委는 주로 경제인과 체육인, 문화, 언론계등 각계인사들로 구성되고對策委는 정부의 각료급인사, 대한체육회장등 체육관계자등으로 구성될것으로 예상된다.

組織委활동을 全政府的차원에서 뒷받침하게될 對策委는 또 산하에 관계부처실무자들로 구성되는 實務委를 통합조정하는 기능을 맡게할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관계자는『일부에서는 올림픽이 정치성을 배제하는 원칙이 있는만큼 올림픽대회운영에 정부의관여폭을 줄여야한다는 주장도있으나 현실적으로 원활한 집행을위해서는 국가적、범국민적인 뒷받침이 절대로 필요하다』고강조하고『東京올림픽등 대부분의 올림픽때마다 정부의 적극적인지원이 있었던것으로안다』고 말했다.

對策委는 현재 총리를위원장으로하고 관계부처 장관들로구성, 운영되고 있는 국민체육심의회를 확대 개편,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될것으로 전해졌다.

### "體制불구 門戶개방"
### 서울市 聲明

서울시는 1일새벽 오는88년도 올림픽의 서울유치결정 투표가 발표된 직후 성명을 발표『올림픽의 서울유치는 8백50만 서울시민은물론 전국민의 경사』라고 환영하고『서울올림픽은 IOC헌장을 준수하여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어떠한 나라의 선수도 자유스럽게 참가할수있도록 문호를 개방할것』이라고밝혔다.

서울시는『88년 올림픽에 대비하여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각종 경기장의 시설을 건설, 오는83년에 완공할 예정이며 지하철을 비롯, 올림픽개최에따른 모든 기본시설을 86년경까지 마칠계획』이라고 밝히고『선수촌과 부대시설도 정부의 주택정책차원에서 이미 구상되고있으며 이러한 계획을 성공적으로추진할수있는 만반의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 南總理、祝電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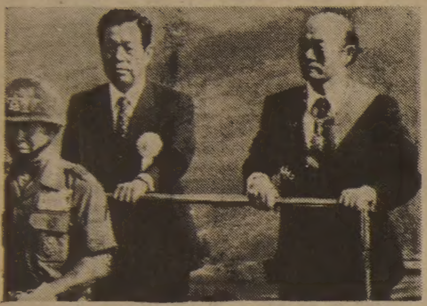
南悳祐국무총리는 1일 올림픽誘致團단장인 朴英秀서울시장 앞으로 祝賀電文을 통해『올림픽 서울개최결정은 대한민국의 國威를 크게떨친 快擧로 온국민의 자랑과 기쁨』이라고 말하고 현지에서 유치활동에 노력한 대표단의 노고를 치하했다.

### "한국의 훌륭한開催확신"
### 사마란치IOC委長、내년 訪韓

【바덴바덴(西獨)1日=聯合】 환·안토니오·사마란치 IOC(국제올림픽委)위원장은 1일새벽(한국시간) 오는88년 하계올림픽개최지의 서울결정을 발표한후 인터뷰를요청한 한국기자에게『한국의서울이 개발도상국가로는 최초로 올림픽을 유치하게 된것은 올림픽운동에 일대 전환점을 마련한것으로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마란치위원장은 또『한국의 모든 능력으로보아 88년 올림픽을 훌륭하게 치를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내년4월 아시아지역방문때 서울을 방문, 올림픽개최준비에 따른 폭넓은 협의를할생각』이라고 밝혔다.

사마란치위원장은 내년4월 중공과 평양을 들른후 서울을 처음으로 방문한다.



◇ 全斗煥 대통령이 제병지휘관 李光魯중장의 안내를받으면서 3군부대를 사열하고있다。가운데는 周永福국방부장관。

## 全대통령、國軍의날 慶祝辭
## "莫強한軍事力만이平和유지"
### "挑發엔 철저한 膺懲力길러야"

全斗煥 대통령은 1일『막강한 군사력은 침략세력의도발을 사전에 自制하게하는전쟁예방의 효과도 아울러 발휘하게 됨으로써 平和유지의 역할도 수행하게 될것』이라고 말하고『우리는 단순히敵의 도발을 물리칠수있는정도가 아니라 도발에 대한 철저한 膺懲力도 함께 갖추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상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함께 서울 汝矣島 5·16광장에서 열린 제33주년『국군의 날』기념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하고『도발의 댓가가 더없이 비싸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 줄수 있을 정도의 막강한 군사력의 유지가 절대로 필요한것』이라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또『우리가 힘을 기르는것은 당면한전쟁의 위협에서 해방되는길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민족의 隆盛을 기약하는길이기도 하다』고 말하고『힘은 막강한 군사력과 튼튼한 경제력, 그리고 건실한 정치역량으로 가 아우러질때 더욱 그 強度를 자랑하게 될것』이라고 지적했다.

全대통령은『진정한 평화는 그것의 否定요인을 否定할수있는 능력을 구비한때 비로소 가능한것』이라고 설명하고『전쟁에 대비한 능력이 없는 弱者가 아무리평화를 갈구해보았자 그것은 無用한 흡부림에 불과한것이므로 우리는 우리의 평화로운삶을위해 더욱힘을 길러나가야 하겠다』고말했다.

全대통령은『막강한 군사력의 유지는 빈손으로 되는일이 결코 아니며 튼튼한 경제력을 갖추는 일이야말로 막강한 군사력유지의 열쇠』라고 지적、『경제의 지속적 성장은 지속적으로 튼튼한安保를 보장해줄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사력·경제력과 함께 견실한 정치역량의 결집을 國力의 또하나의 요소로 지적한 全대통령은『우리는 자기消耗的인 對立에서 과감탈피해 정치의 근대화를 이룩함으로써 우리의 힘을 보다 강하게 결집할것을 함께 다짐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특히『민주시민으로서의 다양한의견과 창의력을 愛國의 大河로 한데 모아 이를 튼튼한 安保와 지속적 경제성장의 動力源으로 삼는것은 우리국민의 민주역량을 과시하는 길이기도 한것』이라고 역설했다.

### 國軍의날 各國長官 차례로 接見·敍勳

全斗煥 대통령은 1일하오 청와대에서 제33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칠레의 포레스티에르국방장관, 콜롬비아의 카마초국방장관, 멕시코의 라라海務장관, 파푸아뉴기니의 페레나국방장관, 파라과이의 나네즈국방·경찰장관등을 차례로 접견하고 保國훈장 統一章을 각각 주었다.

## 쿠웨이트 貯油폭격
### 이란機 3대

【바레인1日聯合】 이란전폭기가 1일 쿠웨이트 북부의 유류시설을 폭격, 이 저장소가 화염에 싸였다고 쿠웨이트의 관영 쿠웨이트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 공격으로 사상자는 없는것으로 알려졌다.

### 地平線

옛날의 한국은 중국인에겐 君子國으로, 근대의 한국은 유럽인에겐 神仙國으로 비쳤는지 모르지만 한국은 그보다도 東方의 古文化國으로 보는것이 옳다고 湖岩 文一平은 말한일이 있다.

▼新羅의 優美한 藝術的文化, 高麗의 莊嚴한 佛教的文化, 李朝의 典雅한 儒教的文化등 시대마다의 찬란한 文化가 한데 어울린데다 유럽의 기술문명까지 곁들인 우리문화는 이제 경제고도성장에 힘입어 工業한국의 얼굴을 보이기도 하지만 88년 올림픽을 서울로 유치할정도로 그힘이 크게 자랐다. 올림픽을 서울에서열면 한국을 보는 세계의 눈은 달라질것이다. 아니 벌써 우리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기에 서울올림픽이 결정됐는지도 모른다. 이제 한국은 전세계의 눈길을 모으고 있는것이다.

▼한국을 보는 눈을 새롭게하는 근원의 하나는 눈부신 경제성장도 있지만 우리나라 古代文化의 精髓를 보여주는데도 있는것 같다. 일본전시에 이어 지난2년반동안 미국인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한 한국美術5千年展은 그곳 8大都市에서 2백26만명의 관람객을 모아, 공전의인기를 얻었다. 9월30일 폐막식에선 미국최대의 박물관인 스미드소니언 자연사박물관의 피스크관장이 이례적인 성명까지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전시회를관람한 많은미국인들은 한국미술을 사랑하게됐고 그 미술품이 극히일부에지나지 않는것을 알고 더욱흥분을 금할길이 없었다고 그는 예찬을아끼지 않았다.

▼신라금관등 국보46점을 포함한 한국미술품 3백54점을 워싱턴포스트는 컬러로 紙上展특집까지했고,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미국일간지의 기사가 무려1천27건, 타임, 뉴스위크등 주간·월간지의특집기사가 1백12건이나됐다. 모두가 한국문화의 다양성·아름다움·독창성·고유성에놀라 중국·일본의亞流로 오해했던잘못을 말끔히 씻었다고한다. 특히 신라금관디자인은 현대미술품도 따라갈수 없을만큼 정교하고 세련된 것이라고 혀를내둘렀고 미국인들이 고려청자, 이조백자 앞에서는 발길을 옮길줄 모를 정도로 감탄했다고한다. 클리블랜드박물관 서먼지관장 같은이는 원래 일본미술전문가인데 우리 미술품을 보고 나선 일본문화는 한국문화의 영향을받아 자란것이라고 아예전공을 한국미술로 바꾸기까지 했다는 소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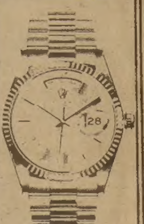
▼서울올림픽결정을 계기로 한국을찾아오는 외국인도 부쩍늘것이므로 우리의석굴암, 대장경까지 보여주면 東方의 古文化國한국을 보는눈이 더 달라질것은 틀림없겠다. 美術5千年展은 이미 유럽·일본·미국을 순회하고 돌아왔지만 中南美·中東·阿洲에도 널리 전시해서 우리문화의 정수를 보여줄겸 새한국의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안팎으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될것이다.

### 社會漫評

군살빼기 끝…


구독신청은
(416)
533·2361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 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온스당 US 438
은: 온스당 US 9.30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534-7791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국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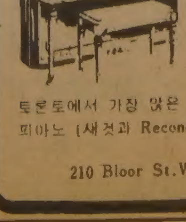
한국일보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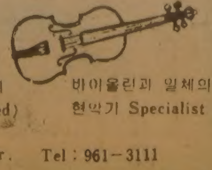
陳氏眼鏡公司
MARWITZ Zeiss-Gruppe West Germany
ZEISS ● 고급안경취급 West Germany
RODENSTOCK
●콘택렌즈를 맞추시는 분께는
썬글라스를 선물 합니다.
BAY OPTICAL CO. LTD.
LUCLIFF PLACE
700 BAY ST. (at Gerrard)
TORONTO, ONT.
TEL: 595-1665
FASHION OPTICAL
525 DUNDAS ST.
(at Spadina Av.)
TORONTO, ONT.
TEL: 363-0684
영업시간
●월~토 9:30AM~6:00PM
●월~토 11AM~7PM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용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416) 537-6685
8AM~6: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Willowdale Office: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전화: (416) 222-9480

一品香飯店
(짜장면등…)중국북방식
한국인 입에 알맞는 요리
특히 북경오리요리전문
1주일 내내영업(11AM.~11P.M.)
393 DUNDAS ST. W.
☎: 363-9527
TOR. ONT.
CHING-ROYAL RESTAURANT

모든 악기를 취급합니다
부속품·악기수리·대여
Remenyi
house of music
1890년에 설립





토론토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피아노 (새것과 Reconditioned)
바이올린과 일체의 현악기 Specialist
210 Bloor St. W. Tor. Tel: 961-3111

# 서울 올림픽 <1>

## 平和외교의 凱歌

# 세계로 跳躍하는 한국 노력인정

## 非同盟·공산권 관계개선·開途國지위向上

바덴바덴의 慶事는 한마디로 感激的인 것이다. 이번의 승리는 단순히 나고야(名古屋)를 눌렀다는 數的인 의미만이 아니라 세계 平和와 번영에 기여해온 우리의 노력과 先進文化, 그리고 國威가 세계속에서 公認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만큼 바덴바덴의 慶事는 外交的인 승리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지위가 향상됐음을 뜻하는것이기도 하다.

하면된다. 그리고 기어이 해냈다는 국민적 確信은 이번 바덴바덴의 慶事가 남긴 정신적 遺産이며 그 구체적인 실현을 7년후 올림픽·서울을 통해 목격할수 있게 된것이다.

體力은 國力이다. 體力을 겨루는 스포츠는 국가의 모두다. 스포츠의 총본산… 올림픽은 따라서 인류모두의 희망이다. 「世紀의 祭典」을 통해 인류모두의 소망인 平和를 실현할수있는 첩경. 그것이 바로 올림픽이다.

올림픽의 서울誘致가 갖는 일차적인 의미는 바로 이聖典의 祭主로서 한국이 갖는 국제적 信望과 이미지 提高에 있다고 봐야할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建國이래 펴온 平和외교의 구현을 위해 이번 올림픽 서울誘致야말로 더이상 흡족할만한 계기를 가릴수 없는, 절호의 찬스라는점이다.

특히 分斷이라는 현실속에서 30여년 남짓 北韓의 南侵위협을 피부로 느껴온 우리의 입지조건에 비추어 이번 올림픽外交의 승리야말로 韓半島및 東北亞, 나아가 세계평화를위한 획기적인 章을 마련했다고 볼수있다. 바덴바덴의 慶事가 이뤄지기직전 北韓대표단은 현지에서 서울誘致를방해하기위해 『서울엔 밤12시넘어 通行이 금지된다』『防空연습때문에 밤에도 불을 끄고 다니는 곳이 서울』등등의 악선전을 퍼뜨리고 다녔다.

올림픽 서울개최가 갖는 국제정치적 임팩트를, 특히 이번 개가가 한국의 외교에 던질 구체적 相乘효과를 北韓측의 妄動을통해 逆證明으로 파악할수가 있는것이다.

그것은 바로 北韓側이 노리는 武力南侵의 명분과 계기를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외교적 효과를뜻한다. 이른바 한반도에서의 戰爭再發을 막는 有無의 장치가 될것이 틀림없다. 올림픽에 출전하고 있는 北韓이 그 聖典확정지를 감히 好戰的인 눈매로 흘길수 없다는 국제적쐐기역할을 바덴바덴의 慶事가 가볍게 해 낸것이다. 이 국제적 쐐기를 끝내 깬경우 北韓측이 감내해야할 온세계의심판이 어떤것이 될지를 저들 스스로가 정확히 파악하는 계기가 될것이다.

올림픽의 일차적인특징은 일체의 政治的介入을 배제한다는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定義는 올림픽개최가 갖는 정치·외교적의미까지를 지우지는 않는다. 88년 올림픽개최지로 서울이 확정됐다는 것은 그 개최장소인 서울을 문제의 핵심으로 파악할때 몇가지 부가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올림픽의 서울개최는 68년 멕시코·올림픽이래 올림픽史上 開途國에서열리는 두번째 올림픽이 된다. 開途國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1천달러를 넘지 못하는, 한마디로 中流국가다. 人力과 의욕은 있되 기술·資源의 부족으로 선진국과의 結束이 불가피한 국가를 뜻한다. 따라서 4년마다 열리는 세계적 祝祭이자 「인류의 희망」인 올림픽祭典은 先進國들만이 번갈아 개최하는 특권을 누려왔다.

68년올림픽誘致에 異例的으로 성공한 멕시코도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버금가는 석유매장량으로 당당히 先進開途國대열에 끼어있다. 따라서 開途國개최의 터부를깨고 서울개최를 확정시킨 바덴바덴의 慶事는 한국은 마침내 開途國대열을 벗어나, 소망의 先進開途國대열에 동참하는 국제적 평가를 받은것으로 봐야할것이다.

또한가지는 대부분이 開途國또는 低개발국이 주종을 이루는 非同盟세력권내에서이번「88올림픽·서울」이 던지는 외교적 의미다. 정부의 非同盟외교는 유엔외교의 變型이다. 다시말해서 南北韓대립외교가 바로 對비동맹외교다. 비동맹권의 핵심세력은 南北韓을 함께 인정하는 소위 南北韓동시修交國이다. 한국이 非同盟가입을 留保하고있는데 반해 北韓은 비동맹의 「理事」격인 調整國멤버다. 매년 거듭되는 비동맹회의에서 北韓은 場內세력으로 (그것도 調整國 자격으로) 한국은 場外의 일개 로비스트로 남아 격전을 벌인다. 싸움은 단연 北쪽에 유리하다. 한국은 그러나 이 不利한 싸움을 견뎌왔고 지난 2월 印度 뉴델리會議에서는 北韓側 제안을 봉쇄함으로써 大勝을 거두었다. 이 싸움이 내년9월 이라크의 바그다드에서 再燃된다. 그러나 對비동맹외교야말로 정부의 力點외교이며 「名分」면에서 北韓을 이겨야하는, 한마디로 한국外交의 死活이 달린 중차대한 관건이다.

「올림픽·서울」은 바로 비동맹외교의 活性을 보장하는 외교적 모멘트이다. 평소 한국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고 訪韓의사까지 표명한 유수한 비동맹국가대표들마저 南北韓동시수교라는 '장애물'에 묶여 선뜻 서울땅을 딛기를 주저해왔다. 北韓측 눈치를 봐야하기 때문이다. 올림픽의 서울개최는 비동맹국가들로 하여금 이러한 주저를깨는 名分이 될것이 틀림없다. 서울의 祭典에 직접 참여하고 거기서 한국의 진면목을 목격한 경우 앞으로 비동맹圈의 향방이 어떤방향으로나타날지는明若觀火한일이다.

그러나올림픽·서울誘致의최대성과로 對共산권외교의 凱歌를 빼놓을수 없을것이다. 정부는 73년「6·23선언」를 통해, 또 지난3월 제5공화국의 出帆을 선언한 全대통령의 취임사를통해 一이념과,체제를 달리하는 모든국

◇南北韓은 東京올림픽 單一팀 출전을 놓고 63년 처음으로 절충을 시도했으나 北傀政治宣戰 공작으로 실패로 그쳤다. 사진은 당시 홍콩 메냐슬러 호텔에서 회동한 南北韓연락자회의 (座列 左측으로부터 北傀 高相俊, 한국의 閔容權, 北傀 徐元俊대표).

## 先進國 대열향한 國力입증

가에 門戶를 개방할뜻을 되풀이 강조했다. 이러한 외교적 캐치프레이즈에도 불구, 東歐圈을 비롯한 공산세력과의 對話는 아직껏 踏步상태에 놓인것이 사실이다.

「올림픽·서울」개최에 그 공산권모두가 초청된다. 中共민간인 하나가 어쩌다 잘못 入國해도 신문의 1면톱기사로 다뤄져온 그 공산세계가 (심지어 北韓까지도) 예의 祭典에 참가하기위해 서울로 몰려들 판이다.

그 결과와 외교적성과가 어떠할지는 지금 7년을 앞당겨 생각해봐도 벅찬 감격이 아닐수없다.

올림픽의 서울개최로 南北韓의 단일팀구성도 그 가능성을 기대할수 있게됐다. 우리는 그동안 올림픽의 단일팀구성을 제의해왔으나 北韓측은 이를 거부해 왔다.

올림픽의 단일팀이 구성될 경우 南北대화의 재개는 물론 체육교류가 이뤄지게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80년대의 통일기반조성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것이라는 전망도 가질수 있다.

올림픽의 서울개최에는 시설이나 財政도 문제이지만 여기에 따른 우리국민의 의식수준도 문제일것이다. 그만큼 88년의 올림픽은 우리 국민의 文化수준을 세계속에 投影시키는 계기가 될것이기 때문이다. 올림픽의 서울개최를 통해 우리는 세계인으로서의 긍지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金勝雄기자】

◇勝利의 祝杯 서울이 88년 하계 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된뒤 鄭周永서울올림픽추진위원장과 金澤壽IOC위원이 축배를 들고있다. 【바덴바덴(西獨) 30日AP聯合】

# IOC良心은 健在했다

## 施設완벽…分斷약점 씻어

### 誠意있는 提案설명서 戰勢뒤엎어
### 미스유니버스 서울大會소개 큰몫

【바덴바덴(西獨)1日=金聖佑특파원】 한국의 일본에 대한 승리는 IOC 良識의 승리였다.

한국이 정말 이겨낼까 싶지않던 상황에서 이긴것도 IOC의 건전한 올림픽 정신 때문이었다.

한국올림픽유치대표단이 바덴바덴에 도착한 1주일전만해도 서울올림픽은 먼곳에 있었다.

대표단도 자신이없었고 관측자들의 예상이나 분위기도 전혀 서울편이 아니었다.

일본의 나고야는 이미 2년전부터 치밀한 유치작전을 펴 금년들어서 지난4월부터 6월까지 각대륙별로 사절단을 파견하여 전세계의 각 IOC위원과 접촉, 한차례 표밭을 다져놓고 있었다.

이에비해 한국은 금년2월말에 올림픽개최신청을 내놓고 본격적인 유치운동에 들어간것도 지난 9월초부터이기때문에 실지로 총력을쏟은것은 1개월도 안된다.

이렇게 뒤늦게뛰어든 싸움인데다가 분단 한국의 정치적상황은 일본에비해 조금도 유리한 조건이 아니었다. 한국의 경제력에대한 신임도 일본만큼은 착실하다할수 없었다.

각국으로서는 아직은 개발도상국에 지나지 않은 한국이 감히 올림픽개최를신청한 용기를 가상히여겨줄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일본측으로 볼때는 자신만만한 경쟁이었다.

이런 암담한분위기에 다소 서광이 비치기시작한것은 지난22일 각 올림픽개최후보지들이 자기선전하는 전시관을 개관하고 나서부터였다.

그리고 분위기가 결정적으로 서울쪽으로 기울기 시작한것은 29일 하오에 열린 IOC총회에서 있은 제안설명 이후부터였다.

일본보다 성의가 더 있었던 전시관이나 일본보다 열기가 더있었던 제안설명은 그자체가 일본에 비해 별로 뒤떨어지는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대승이라고 할것까지는 못되었다.

그러나 짧막한 한국소개영화에서는 미스·유니버스서울大會장면이 군데군데 나와 한결 설득력이 있었다.

그런데도 이두가지가 한국의 큰 전기가된것은 한국을 모르는 IOC위원들에게 한국을 새롭게 인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때문이다.

그때까지 많은 IOC위원들은 한국의 올림픽개최능력에 반신반의했다.

그러던것이 이두가지를 통해 한국의 훌륭한 올림픽준비시설과 열의를 보고, 이들은 놀랐다.

이만하면 올림픽개최에 충분할 뿐 아니라 아직 아무시설준비도 되어있지않는 나고야에비해 여건이 월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굳이 올림픽을 세번째나 가지고가려는 일본에 줄필요가없다. 정치적인 불안이있다지만 IOC로서는 올림픽주최에 지장이없다는것만 확실하면된다』

DPA통신은『서울의 완벽한 시설이 정치적불안을 상쇄했다』고 썼다.

정치섬에 흔들리지않고 오직 올림픽정신의 기준에서만 IOC위원들이 표를 던졌기 때문에 서울이 이길수 있었다.

이것이 곧 IOC良識의 승리다.

서울과 나고야의 표차가 의외로 컸던것도 결국 그만큼 양심적인표가 많았다는것을 의미한다.

일본측으로서는 한국과는 거꾸로 시설이 아직 미비하고 일본에서 세번째 올림픽을 연다는것이 약점이었지만 한국의 정치정세가 자기네에게 큰 이점인것으로 생각했다.

# IOC와 한국 <5>

## 성장한 國力의 實像 과시

### IOC관계、能動的인 위치로

68년 멕시코 올림픽대회 개막을 며칠 앞두고 열린 IOC총회에서 북한의 호칭에 대해 새로운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북한은 「멕시코 올림픽에는 노드·코리아로 출전해야 한다」는 IOC결정에 남북, 개회식에참가를 거부 했는가하면IOC를 맹렬히 비난 함으로써 큰 물의를 일으켰다.

북한의 이러한태도는 많은 IOC위원들과 스포츠관계자들의 분노를 일으켰으며, 張基榮 IOC위원도 『북한의 올림픽 개회식 불참 태도는 IOC총회의 결의를 정면으로 거부한처사이므로 DPRK 결정을 즉각 취소 해야한다』고브런디지 위원장에게 밝혔다.

북한의 호칭문제를 둘러싸고 새로운 사태가 펼쳐지자 브런디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노드·코리아란명칭으로 멕시코 올림픽에 선수단까지파견해놓고 약속을 이행않은 것은 IOC의권위를 무시한 처사이며 스포츠를 정치에 이용하는것이라고 비난하고, 북한이 IOC 결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이 용인된 때까지 한국은 코리아로、북한은 노드·코리아로 부르기로 한 그르노블 결정이 계속 유효하다고 강조했다。멕시코IOC총회의 결정이 무효가 된것이다。

—그러나 69년6월 공산국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열린 제68차 IOC총회는 한국과 우방 IOC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산권 위원들이 담합, 멕시코 IOC총회의 의사록을 날조하여 변칙통과、72년 뮌헨 올림픽대회 때부터 북한의 호칭이 DPRK로 불리게 된것이다。

한국대표단에서는 북한이 멕시코올림픽에 노드·코리아로 참가했다면 추후 북한의 호칭은 자동변경되는것이지만 불참하면 무효가 된다고 멕시코IOC결의문 정본(正本)에 명시되어있으며 이같은 단서조항은 고의적으로 빼버린 회의록을 총회에 상정시켜 통과시킨 것은 「IOC의 역사적인 과오」라고 통박했다。이 회의에 참석했던 張IOC위원은 발언대에 올라 멕시코총회 회의록원본의 북한호칭대목(20페이지)에 노드·코리아의 참가를 전제로 한다는 대목이 있고, 22페이지에 「북한이 합의한 조건을 불이행했으므로 1968년11월이후 DPRK사용허가는 철회한다」고분명히 적혀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런데 바르샤바총회에 상정된 회의록에는 이러한 조건부 조항이 감쪽같이생략돼 있어서 북한이 멕시코대회에 노드·코리아란명칭으로 참가하지 않더라도 DPRK명칭을 사용할수 있는것처럼 되어있었고, IOC위원들은 이 회의록을 근거로 해서 투표, 28─15(기권2)로 승인 했다는 것。바르샤바총회의 결정은 IOC가 저지른 큰 과오로 지적되었고 국내외적으로 충격을 주었지만 한국은 이후 호칭문제등에관해 과거보다는 탄력적인 대범한 자세로 국제스포츠무대서 북한과 대응 하여 우리나라의 월등한 국력과 스포츠잠재력을 과시할수 있게 되었다。

이때까지의 한국─IOC의 관계가 수동적인 테두리에서크게벗어나지못했다고 본다면、올림픽 서울유치로 한국은 비로소 능동적 위치에 서게된 셈이다。

## 올림픽 開催신청의 意義

서울 올림픽의 실현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이 올림픽유치의 뜻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밝혔다는사실은 큰 의의를 갖게되는 것이다。

불발로 끝나고 말았지만, KOC는 올림픽유치의 전단계로 71년도 IOC총회를 서울서 열계획을세워놓고 69년2월 IOC집행위원회(로잔)때 우리의 입장을 밝힌바 있었다。

IOC、ANOC(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ISF(국제스포츠연맹)、AGF(아시아경기연맹) 등과 같은 국제스포츠기구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위치에올라「우리의 이익」을 보장받기위해서는 꾸준하게 스포츠외교를 강화해나가는 방법밖에 달리없다。

스포츠외교의 중요성을 정부의 차원에서 재인식하고 스포츠외교의 전문가들을 육성해나가면 경기력향상에 보조를맞추어 스포츠외교서도 실력을 올릴수 있을것으로 보인다。【金在燮기자】

【끝】

◇72년 뮌헨 올림픽 개최식에서 한국 선수단이 태극기를 앞세우고 행진하고있다.

### ◇서울 올림픽 유치日誌

▲79. 9. 19 국민체육심의위 7인소위원회서 유치결의
▲79. 9. 21 정부승인
▲79. 10. 8 서울특별시장유치발표
▲80. 3. 7 문교부주재 관계기관 실무자 연석회의
▲80. 9. 29 KOC10인 소위원회개최
▲80. 11. 6 KOC확대 상임위원회개최
▲80. 12. 2 KOC, 서울올림픽유치 지지한다고 IOC에통보
▲80. 12. 3 정부, 유치방침변동없음을 발표。문교부로부터 올림픽유치 지침접수
▲80. 12. 15 IOC올림픽유치 설문서접수
▲80. 12. 19 동답변서 작성 (문교부·서울시·KOC)
▲80. 12. 23 올림픽유치 대책협의회개최
▲81. 1. 9 올림픽및 아시안게임유치 협의회개최
▲81. 2. 13 바덴바덴 IOC총회 조직위로부터 전시관,대표단규모 통보요청
▲81. 2. 26 IOC에 답변서제출
▲81. 3. 27 올림픽유치 대책위및 세부계획안 작성
▲81. 3. 30 NOC조사단방문
▲81. 4. 4 IOC조사단방문
▲81. 7. 9 미주NOC총회 (베네수엘라)참가유치교섭
▲81. 7. 30 ANOC참가유치교섭
▲81. 8. 6 인도IOC위원 심씨내한
▲81. 8. 16 노르웨이 IOC위원 스타우보씨 내한
▲81. 8. 25 IOC집행위원 쿠마르씨 (인도) 내한
▲81. 9. 8 대만IOC위원 헨리·슈씨내한
▲81. 9. 18 유치교섭단출국
▲81. 9. 29 제84차 IOC총회서 유치제안 설명
▲81. 9. 30 유치결정

### ◇역대 올림픽대회

| 회 | 연도 | 장소 | 참가국 | 종목 |
|---|---|---|---|---|
| 1 | 1896 | 아테네 | 13 | 10 |
| 2 | 1900 | 파리 | 21 | 14 |
| 3 | 1904 | 세인트루이스 | 21 | 12 |
| 4 | 1908 | 런던 | 22 | 20 |
| 5 | 1912 | 스톡홀름 | 28 | 14 |
| 6 | 1916 | 1차대전중단 | | |
| 7 | 1920 | 앤트워프 | 29 | 19 |
| 8 | 1924 | 파리 | 44 | 19 |
| 9 | 1928 | 암스테르담 | 46 | 16 |
| 10 | 1932 | 로스앤젤레스 | 38 | 16 |
| 11 | 1936 | 베를린 | 49 | 21 |
| 12 | 1940 | 2차대전중단 | | |
| 13 | 1944 | | | |
| 14 | 1948 | 런던 | 58 | 18 |
| 15 | 1952 | 헬싱키 | 69 | 18 |
| 16 | 1956 | 멜번 | 67 | 17 |
| 17 | 1960 | 로마 | 84 | 17 |
| 18 | 1964 | 도쿄 | 94 | 19 |
| 19 | 1968 | 멕시코시티 | 125 | 18 |
| 20 | 1972 | 뮌헨 | 123 | 21 |
| 21 | 1976 | 몬트리올 | 94 | 22 |
| 22 | 1980 | 모스크바 | 78 | 21 |
| 23 | 1984 | 로스앤젤레스 | — | — |
| 24 | 1988 | 서울 | — | — |

# 한국國力세계에 誇示

## 美올림픽 서울開催 환영

### 最適의 施設제공能力 신뢰표시

【워싱턴30日=聯合】 미국정부는 30일 88년 하계올림픽을 서울에서 개최하기위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의결을 환영하는 한편 한국이 올림픽경기를 위한 최적의시설을 제공할수 있을것이라는 신뢰를 표시했다。

헨·베일리즈 미국무성 아시아·태평양문제 담당대변인은 『우리는 서울이 88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것을 기뻐한다』고 말하면서『서울이 올림픽개최지로 선정될수 있었던 것은 한국민의 끈질긴 노력덕분』이라고 지적했다。

## 서울決定 IOC힘 보인것

【로스앤젤레스支社】 로스앤젤레스타임즈는 10월1일 한국의 서울이 88년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된것은 IOC가 모든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준것이라고 보도했다。

테네스·리츠특파원발로보도한LA타임즈는 벨기에, 핀란드, 캐나다대표가 서울결정에 막후노력을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핀란드대표 피터·탈버그씨는 『IOC가 서울개최를 결정한데 충분한 확신을 갖고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디오피아대표 야네카·테세마씨는『올림픽경기가 매번 다른지역에서개최되어야한다는 논리를 이번 총회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LA타임즈는 하계와 동계올림픽경기가 모두 유럽지역 이외에서 열린것은 1932년이래처음이라고보도했다。

## 北傀 非同盟외교에 차질

### 美言論들、妨害공작숨어있었다

【워싱턴1日=曺洪植특파원】 미국의 언론은 88년 하계올림픽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IOC가 결정한것을 그렇게 떠들썩하게 크게 보도하지는 않았다。워싱턴·포스트紙는 스포츠面의 1면에 그런대로 돋보이게 보도했다。

한편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올림픽 서울개최의 의미를 결코 적은것으로 평가하지는 않았다。

韓美관계에 정통한 한 외교전문가는 북한이 지난번 美고성능정찰기 SR71機에 미사일을 발사한 정치적동기가 한두가지가 아니겠지만 한국정세를 불안한것으로 세계에 알려 올림픽 서울개최를 저지하기위한 목적이 감추어져 있는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전문가는 북한이 그들의 후진국 중심이나 소련보다 어떤 측면에서 더 국력을 기울이고있는 비동맹외교에도 차질을 빚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메아리

앞으로 15년후면 1세기를 채우는 근대올림픽은 갈수록 「巨人化」하고 있다。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제1회 올림픽은 13개국 3백11명의 선수가 참가한 홀가분한 대회였다。

그후 8년뒤 미국 세인트루이스 3회대회엔 참가국이 하나 더 줄어 겨우 12개국뿐이었다。이렇게 작은 규모가 차츰 눈사람처럼 부풀어 72년 뮌헨엔 1백22개의 나라가 모였다。규모가 비대해지니 관중숫자도 어마어마해졌다。

1952년노르웨이 오슬로 교외에서 벌어진동계올림픽스키경기에 15만명이 몰려 세상을놀라게 했다。東京올림픽 마라톤엔 연도에 최고1백50만으로 추산되는 인파가 늘어섰었다。

스케일이 커지면서 선수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수 밖에 없다。올림픽은 단적으로 기록과의 싸움이다。세계신기록과 금메달이 자랑스런 목표의 하나다。

기록과의 싸움은 곧 자기와의 투쟁이라고도하겠다。마라톤의 영웅 아베베는 엄격한 「자기戒律」세가지를 지켰다。첫째가 순수한 조국애, 둘째가 금주와 금연, 세째가 자만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었다。그의 수도사같은 생활의 결과라고 믿어진다。

## 올림픽과 記錄

올림픽의 금메달 경쟁은 역시 미·소 두 강대국의 대결로 압축된다。모스크바 반쪽대회를 빼면 지금까지 동·하계 올림픽에서 금메달 획득은 미국이 단연 앞선다。7백개 가까운 금메달을 미국선수들이 휩쓸어 갔다。

그러나 이 양상은 달라져 간다。76년몬트리올 대회에선 소련이 앞서 잣고 동독마저 미국을 제쳤다。공산권은 이대회 1백98개 금메달 가운데 1백21개를 차지했다。

「스포츠東獨」의 질주는 사뭇 위협적이라고하겠다。헌법에국가는 스포츠를장려할 의무가있고 국민은 즐길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삽입한 세계 유일의 나라다。「스파르타키아데」경기대회라는 미니 국내올림픽을 열어 8살 전후의 어린 유망주를 뽑아 무섭게 스파르타식 훈련을 시킨다。

「88년서울올림픽」에 나설 한국의 주역들은 지금 한참 자라나고있는 청·소년들이다。우리체육계는 7년앞을 길게 내다보면서 「88년의 금메달리스트」를 착실하게 찾아 길러 가야 한다。

미시사가 한인연합교회

창립 제5주년 기념예배및 장로장립

초대합니다.

주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귀 가정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미시사가 한인연합교회에서는 창립제 5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예배와 아울러 아래와 같이 두분의 장로장립식도 겸하여 거행하고저하오니 부디오셔서 격려해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　시 : 1981년 10월11일(주일) 오후7시30분
장　소 : 미시사가 한인연합교회
주　소 : 2500 MIMOSA ROW MISSISSAUGA, ONT.
전　화 : 277-2394, 276-5163

창립 제5주년 기념예배

장로장립 : 전 동 휘, 배 찬 규

1981년 9월 일

미시사가 한인연합교회
교우일동 드림

DOMINION SMALLWARES

◆◆ 금주의 스페샬 ◆◆

OCT. 5th --- OCT. 17th

| | | |
|---|---|---|
| Icy chocolate | 150/5¢ | 4.55 |
| Halls prepack | 7 boxes+10free | 33.55 |
| Hershey chocolate bar | 36/40¢ | 8.99 |
| Laura secord chocolate bar | 36/40¢ | 9.29 |
| Hubba bubba presenter | 89/30¢+7free | 17.13 |
| Neilson chunks reg&peanuts | 120/15¢ | 11.29 |
| Bazooka gum | 480/2¢ | 5.99 |
| Caramilk thick bar | | 13.75 |
| Cracker jack | 36/40¢ | 9.95 |
| Mc toffee | 36/40¢ | 9.95 |
| Halls prepack | | 33.55 |
| Leaf ball of fire gum | 48/5¢ | 1.45 |
| Astro pop | 36/25¢ | 6.29 |

이 기간동안 헬로인 캔디5% 더 할인해 드립니다.

DOMINION SMALLWARES

(Cash & Carry에 한함)　920 Caledonia Rd.

약간의 세일즈맨 모집　789-7214(MR. 김)

Lawrence
Keele
Caledonia
Dufferin

# 波에 親共「強硬그룹」등장

## 黨前간부·海軍장교중심 對勞組 협상규탄

【그다니스크(폴란드) 30日 AP=聯】폴란드정부가 자유노조와의 새로운 협상태세를 준비하고있는 가운데 정부의 이같은 태도를 맹렬히 규탄하는 새로운 폴란드강경그룹이 30일 그다니스크부근 그디니아에서 결성된것으로 발표됐다。

이 새 강경그룹은 폴란드공산당 지방신문 글로스·비브레자에 발표한 성명을통해 단체결성사실을 밝히고 당중앙위에 대해 자유노조본부가 있는 그다니스크지구당지도자들의 활동을 조사해주도록 촉구했다。

그다니스크 지구당지도자 타데우스·피스바하는 진보파로 알려졌는데 그디니아강경그룹은 그다니스크 당간부들이 폴란드 공산당의 원칙인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더 이상 존중하지 않고있다고 비난했다。

이 그디니아 강경그룹은 前당간부들과 해군장교로 구성돼있다。 이 그룹은 글로스·비브레자 지가『애매모호한 중립선』을 견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자유노조 전국대표대회 제1단계회의를 맹렬히 규탄한 당정치국의 성명을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밝혔다。 당정치국은 자유노조의 과격분자들이 반소·반폴란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규탄했었다。

### 自由勞組는 정치적 蘇, 波지도층 批判

【모스크바30日路=聯】소련은 30일 폴란드 지도자들이 자유노조와 협력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비난하고 자유노조 전국대표대회 제2단계가 발표한 지칭서가『정당의 선언서』와 같은 정치적 성격을 띨 것이라고 맹렬히 공격했다。

관영타스통신은 또 폴란드 위기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국제통화기금(IMF)에 재가입을 희망한 자유노조의 견해에 반대를 표명하면서『자유노조가 자본주의 지배하에 있는 국제경제센터와의 협력으로 폴란드를 몰고가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폴란드는 지난50년 소련이 주도하는 코메콘에 가입하기 위해 IMF에서 탈퇴했었다。

### 리비아 軍事行動땐 埃정부, 수단支持

【카이로30日AP=聯】안와르·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은 30일 리비아가 수단에 대해 군사행동을 취할 경우 이집트는 수단을 즉각 지지할 것이라고 무아마르·가다피 리비아 국가원수에게 경고했다。

## 베이루트西쪽 게릴라本部에 다이너마이트폭발 19名死傷

【베이루트1日UPI=聯】다이너마이트를 적재한 자동차가 1일 하오5시(한국시간) 베이루트시 서쪽에 있는 아랍대학부근의 한 게릴라지도자본부에서 폭발, 최소한 4명이 죽고 15명이 부상했다고 목격자들이 말했다。

한편 우익 팔랑헤방송은 이 폭발이 베이루트시 버스타니街의 아부·이야드 사무실근처에서 일어났으며 폭발한자동차는 2백20파운드의 다이너마이트를적재하고있었다고보도했다。 아부·이야드는 아라파트가 지도하는 알·파타 게릴라단체의 제2인자이다。

## 對앙골라介入금지 美上院서 폐기결정

【워싱턴30日AP=聯】미상원은 30일 미국의 對앙골라지원및 앙골라에있어서 모든형태의 군사작전을 금지시켜온 이른바「클라크 수정안」을 66대29로 폐기 시킴으로써 레이건행정부의 대외원조정책에 승리를 안겨주었다。

상원은 파키스탄과 아르헨티나등 총58억달러에 달하는 대외원조법안을 심의하는 가운데 미국의 對앙골라 불간섭을 규정한 동수정안을 폐기했는데 에드워드·케네디의원등 반대파는 수정안폐기에 미국이 나미비아(서남아프리카)의 독립노력을 지원하는 전제조건을내세웠으나 부결됐다。

## 波구제 포괄적論議 自由노조서

【그다니스크30日AP=聯】수일동안의 심각한 내부분열을 극복한 폴란드 자유노조 제1차전국대회 2단계회의는 5일째인 30일「재난」으로부터 폴란드를 구제하기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련관영 타스통신은 자유노조의 폴란드 구국계획이『노조의 문서가 아니라 국가및 사회의 영도권을 요구하는 정당의 선언문』이라고 비난했다。

자유노조대표들이 이날 토의를 개시한 29페이지의 문서는『이번 회의가 폴란드에 재난의 위협이 가해지고있는 순간에 구국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히고『우리는 자신들을 위기속의 삶에 적응시킬수 없으며 위기로부터 탈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번회의는 또 새자유노조지도자 선출을 연기, 대표들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평가할수있는 여유를 주었는데 지난29일 노동자권리에 대한 새법안을 둘러싸고 타협했다는 이유로 다른지도자들과함께 비난을받아온 레흐·바웬사가 새지도자로 재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것으로 노조소식통들은 보고있다。

# 나의 이력서

〈題字·尹致暎〉

윤치영 ⑥⓪

## 組閣에 얽힌 秘話

## 梨花莊측 依賴받고 2명씩 名單추천

## 仁村자리싸고 李박사·韓民黨 不和도

제헌국회는 開院이래 거의 쉴틈이 없이 建國의 작업을 펴나갔다。 아직 행정부가 구성되지 않은 때라 국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거나 다름없었다。

해방 3주년이 가까와오고 있는 여름어느날, 李承晩 대통령의 숙소인 梨花莊에서 尹錫五비서가 찾아와 組閣을 위한 추천명단을 작성해달라고했다。 웬 영문인가 싶었다。

그렇지않아도 李承晩박사와 組閣의 방향에 대해 수차 의논해오던터였다。 새삼스레 추천명단을 써내라니, 처음엔 우스운 생각이 들었으나 매사 신중히하려는 李박사의 의도라는 것을 알았다。

외람되게 내가 組閣후보의 이름을 써야될판이었다。 그러나 지난날의 관계가 아니고 이젠 대통령의 당부인지라 써야만했다。

국무총리에 金性洙 曺晩植, 외무장관에 白樂濬 林炳稷, 법무장관에 李仁 金炳魯, 국방에 池靑天 李範奭, 사회부장관에 李允榮 錢鎭漢, 문교부장관에 白樂濬 安浩相。 이렇게 국무총리와 5부장관후보엔 2명씩 복수로 써넣었다。

국무총리추천에 仁村 金性洙 古堂 曺晩植선생을 쓴 것은 仁村을택하길 바란 의도였다。 李박사는 국무총리에 以北의 민주진영 지도자를 생각하고 있었다。 장차 失地회복과 통일에의 의지를 보여주고 南과北의「大同」정신을 국내외에 과시하려는 뜻에서였다。

그렇다면 그 인물은 曺晩植선생이었으나 그는 北韓땅에 갇혀있는 몸이었다。

해방직후 曺선생은 北쪽의사실상 최고의 지도자였으나 金聖柱를 앞세운 소련군에의해 연금되어있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신망이 두터운 仁村이 국무총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것이 나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 추천은 빗나갔다。

국방에 독립군의 거물 2명을 추천한것은 당시의 중론대로였고 白樂濬박사의 이름을 외무와 문교에 두번 쓴것은 그의 탁월한 식견과 능력이 그어느쪽에서라도 빛을 봐야한다는 견해였다。

나는 재무엔 金度演, 농림엔 曺奉岩, 상공엔 任永信을 單數추천했는데 이들이그자리에 가장 합당한인물이라고 믿었다。 경제전문가인 金度演과 외교에 밝은 任永信은 미국사정에 아주 밝기때문에 建國初나라살림의 부흥과 對外통상에 있어 對美교섭에 능할것이라고생각했다。

그들은 뛰어난 미국通이었다。

그밖에 교통장관엔 閔熙植, 체신장관에 尹錫龜등을 추천했다。

당시 내각의 수석장관은 內務였다。 나는 李박사에게 滄浪 張澤相이 내무장관에 적격이라고 건의했었다。 그러나 李박사는 美軍政에참여했던 인물을 발탁하기를 꺼렸다。

그래서 나는 내무엔 가능성이 희박한 인물의 이름을 써넣어 상대적으로 滄浪이 되기를 바랐다。 뒤에 이 내무장관자리때문에 모함이 오가고 속을 썩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組閣을 앞두고 梨花莊주변과 국회등 곳곳에서는 갖가지 추측이 오르내렸다。「桂洞宮」과「安洞宮」주변에서도 이런 저런 風說이 많았다。 桂洞宮이란 仁村의 桂洞집을, 安洞宮이란 安國洞의 海葦 尹潽善집을 사람들이 농삼아 이르는 말이다。 두곳 모두 韓國民主黨의 인물들이 많이 드나들었는데 이곳에서도 李박사에게 組閣추천을 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

韓民黨안에선 국무총리에 仁村을 올려야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그전엔 나도 절대 동감이었다。

하지만 李박사는 달랐다。 그는국무총리직은 상징적인 자리로 여겼다。 심할 때는『비서직같은 거야』라고 말했다。 李박사는 仁村을 財務에 앉힐 생각이었다。 建國의 어려운 시기에는 財務가 제1重責이며 그러니 재력과 능력이 있고 인품이 원만한 金性洙를 재무로 해야된다고 주장했다。

우여곡절끝에 組閣의 內定者 명단이 나왔다。

뚜껑을 열고보니 국무총리에는 意外인물인 李允榮목사(制憲의원)가 指名됐다。 모두가 깜짝놀랐다。 李박사는 曺晩植선생이 黨首인 朝鮮民主黨의 부위원장(부당수)인 李목사를 代打로 指名한것이다。

11부장관엔 내무 尹致暎, 외무 張澤相, 재무金度演, 법무 李仁, 국방 李範奭, 문교 安浩相, 농림 曺奉岩, 상공 任永信, 사회 錢鎭漢, 교통 閔熙植, 체신 尹錫龜, 무임소에 李靑天, 그리고 4處엔 공보 金東成, 법제 俞鎭午, 총무 許政, 기획 李敎善이 당됐다。 이것은 결국 李박사와 韓民黨간에 정치적 不和를 낳는 씨앗이 되고말았다。 韓民黨측은 仁村의 재무지명을 格下로 여겼다。

仁村의 財務지명은 거부를 갈루의 外形만을 생각해 李박사의 깊은 心中을 이해못했던것이다。

내가 가장 섭섭하게 생각한 것은 白樂濬박사가 빠져버린 것이다。

몇사람은 자신의 내정된 職에 불만을 털어놓았다。 무임소에 내정된 李靑天씨는 내가 찾아가니『왜 왔소。 난 절대 안해요』라며 버럭 화를 냈다。

항간에선 내가 組閣에 깊이 간여했다는 비난도 나왔다。 내가 內務에 내정된것을 두고는 또다른 모함이 있었다。 이건 나로서도 생각못한 일이었다。

◇李承晩박사의 숙소이기도한 洛山그늘에 가리워진 梨花莊은 건국초 組閣을비롯정치의 깊숙한 產室역할을했다。

# 올림픽 1世紀

## 88年 서울올림픽 열리기까지 <1>

◇1935년 베를린·올림픽에 초청되어 히틀러에게 올리브 나무를 전하는 근대올림픽 최초의 영웅 스피리돈·루이스。

◇올림픽창시자 쿠베르탱남작。

## 大會운영 현재와 비슷

### 최대 영예는 올리브冠 쓰는것

### 美는 첫회 12種서 9種目석권

西歐문명의 원류인 미케네문화를 연 古代그리스인들은 기원전 7세기께 主神제우스에대한 경배와 그리스 민족의 잔치로 諸神들이 살고있는 올림푸스산아래의 올림피아 평원에서 스포츠제전을 마련했다。 그리스인들은 4년을 주기로 이행사를 계속, 그 주기를 올림피아드라했다。 이것이 古代올림픽의 기원이다。

당시의 경기종목은 현대의 등과 같은것은 아니나 달리기·레슬링·복싱·전차경주·원반던지기였던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그리스의 모든 자유민이 참가한 이古代올림픽의 최대영예는 각종목에서 우승, 올리브가지로 만들어진 승리의 관을 쓰는 것이었다。

1894년 보불전쟁후의 암울한 유럽세계에 새로운 희망을 던져주기위해 피에르·드·쿠베르탱남작이 古代올림픽제전의 부활을 제창, 그해6월23일 파리 소르본대학 강당에서 제1회대회를 古代올림픽 발생지인 아테네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전쟁으로 손상된 청소년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스포츠를통한 세계각국민의 이해와 우정을 깊이해 세계평화에 이바지하자는것이 곧 근대올림픽의 창설정신이었다。

1896년 석물가공장소로 전락됐던 옛올림픽의 터전을 단장, 대리석의 메인·스타디움을 건설했다。 자전거 경기장과 실내체육관도 신설되었다。

4월6일 8만 아테네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활된 첫 올림픽이 열렸다。

파리회의에서는 34개국의 지지를 받았으나 막상 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한 나라는 13개국, 선수 2백95명에 불과했다。 지구의 반을 돌아 美國이 참가하지않았더라면 올림픽은 유럽의 지역체전으로 전락할 뻔했다。

12종목의 육상경기중 美國이 9종목을 석권했다。 독일은 체조, 프랑스는 사이클을 휩쓸었다。 각 종목서 패배, 침울해있던 주최국 그리스는 대회마지막 종목인 마라톤에서 1·2위를 석권, 열광했다。 양치기출신의 우체부 스피리돈·루이스。 그는 근대올림픽 최초의 스타요, 그리스인들의 영웅이었다。

한갓 목동에 불과했던 루이스는 아테네교외의 마루시에서 우편배달을 하다가 다른 20명의 그리스선수들과 함께 마라톤에 출전, 그의 생업으로 잘 발달된 다리로 40㎞코스를 거침없이 달려 2시간58분50초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루이스의 메인·스타디움 입장은 그리스인들에게 기원전5백90년 펠로폰네수스의 결전에서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1백리길을 달려와 조국의 승리를 전한 아테네용사의 승전보처럼 감격적인 것이었다。 루이스는 40년후인 1936년 孫基禎이 마라톤우승을 차지한 베를린·올림픽에 히틀러의 초청으로 참석, 그리스의 올리브나무를 전하기도했다。

첫 올림픽의 경기종목은 10개였으나 바다에서 하기로된 요트와 수구에는 참가선수가 없었으며 조정경기도 폭풍으로중단되었다。 대리석 메인·스타디움의 육상트랙은 커브가 너무급해 지나치게 길쭉한 꼴이 되었으며 허들은 필드위에서 행해졌다。 대회운영은 현재와 비슷했으며 우승자에게는 메달과 올리브가지가 수여되었다。

제2회 올림픽은 1900년 파리에서열렸으나 같은 시기에 열린 만국박람회부속 체육시치로 격하되고 말았다。 쿠베르탱 남작의주도로 육상경기만은 독립, 실시되었으나 큰 관심을 얻지못했다。 육상 입상메달은 미처 만들어지지않아 이듬해 우편으로 부쳐졌으며 박람회의 쇼처럼되어버린 다른종목 입상자들은 50프랑에서 5천프랑까지의 상금도 주어졌다。

2회대회의 영웅은 美國의 육상선수 알빈·크렌즈레인으로 그는 60m, 1백10m 허들, 2백m 허들, 넓이뛰기등 4종목을 석권했다。

제3회대회는 美國의 적극적인 올림픽참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세인트루이스에서 벌어졌다。 그러나 유럽과 너무 먼 거리여서 21개국 5백62명의 선수만이 참가, 2회대회처럼 초라하게 치러졌다。 1906년에는 파리와 세인트루이스대회의 부실에 자극된 유럽인들의 제의로 아테네에서 올림픽 중간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1908년 제4회 올림픽이 런던에서 열렸다。 이무렵 비로소 참가국들은 국가올림픽위원회(NOC)를 조직하고 국가대표선수를 파견, 참가국 기와 유니폼을 입고 입장식에 참가했다。

대회최종일 윈저궁에서 화이트·시티·스타디움에 이르는 42·195㎞의 마라톤코스에는 25만에 이르는 관중이 줄지어 섰다。 맨앞장에서 숨을 헐떡이며 결승선에 들어선 이탈리아의 도란도·피에트리는 두번씩이나혼절, 보다못한 임원들의 도움으로 테이프를 끊었으나 격당해 비운의 주인공이 되었다。 피에트리는 알렉산드라왕비의 동정어린 금컵을 받았으며 마라톤의 메달은 美國의 자니·헤이스가 차지했다。

【方錫晌기자】

# 流星의 賦

<197>

李炳注作 李友範畫

明暗 ⑰

임금은 여전히 호색(好色)의 꿈길에 있었다。 벼슬아치들은 당과 싸움 하느라고 목에 핏대를 올리고 있었다。 별의별 상소(上疏)가 몰려 들어오기도 했다。

그래도 한양은 태평연월이었다。 계남의 생활에도 별다른 변함이 없었다。 직장엔 나가면 동료와 부하들과 친화했고 집으로 돌아오면 숙랑의 사랑이 지극했다。 날마다 어머니에게 정성껏 선물을 보내어 봉친(奉親)하길 잊지 않았다。

그러나 정해년(丁亥年) 선조 20년에 접어들자 왠지 모르게 수상한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다。 2월에 왜선(倭船)이 흥양경(興陽境)을 침범했는데 그 규모가 종전과는 달랐고 피해 또한 막심했다。 한편 함경도 경흥(慶興)에선 호적(胡敵)과의 결전(決戰)이 있었다。

그런데 이 결전이 홍계남에게 충격을 준것은 계남이 마음으로 흠모하고 있던 이순신이 패전(敗戰)했다는 죄로 하옥(下獄)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그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이순신이 조산보의 만호가 된 다음해 즉 정해년 8월, 녹둔도(鹿屯島)의 둔전관(屯田官)을 겸하게 되었다。 녹둔도는 두만강이 바다로 진입하는 어귀에 있는 작은 섬으로서 경흥에서 남쪽으로 60리쯤의 상거에 있었다。

이순신이 부임하고 보니 녹둔도를 지키기엔 병력이 모자랐다。 그래 이순신은 북병사 이일(北兵使 李鎰)에게 증병(增兵)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일은 이순신의 요청을 번번이 묵살했다。 사송아(沙送阿)、갑청아(甲靑阿)를 두목으로 한 오랑캐들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다。

그날은 안개가 짙었다。 게다가 군사들은 벼 베기에 열중하고 있었고 목책(木柵) 안엔 겨우 십여명의 군사가 있었을뿐이었다。 그런데다 적의 기습이었기 때문에 수호장 오형(吳亨)과 감독관 임경번(林景藩)을 비롯해서 많은 전사자가 있었다。

뒤늦게 사태를 안 이순신은 유엽전(柳葉箭)을 쏘아 적의 예봉을 꺾는 동시에 퇴각하는 적들을 추격하여 포로가 된 60여명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순신도 이 전투에서 왼편 다리에 화살을 맞았다。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이순신은 자기가 화살을 맞은 것을 군사들이 알면 사기(士氣)에 영향을 줄까보아 주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화살을 뽑아버리고 전투를 계속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병사 이일은 녹둔도 패전의 책임을 지워 이순신을 죽이려고 형구(刑具)를 갖춰 놓고 이순신을 불러들였다。 이일의 군관 선거이(宣居怡)는 평소 이순신과 친하게 지냈던 사이라 명령을 전하곤 술이라도 한잔 마시고 들어가라고 했다。

이순신은 그 제의를 물리치고 태연자약하게 병사 앞으로 나아갔다。

이일이 호통을 쳤다。

『무슨 연고로 패전을 했는지 소상하게 알려라』

이순신은 결코 패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진술하고, 이번의 사태는 번번이 증병을 요청했는데 들어주지 않은 이병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항변했다。 그리고는 덧붙였다。

『문서 목록이 있으니 자초지종이 밝혀질 것이오』

# 모눈종이 위의 生

<216>

趙善作 作 金光培 畫

## 돌개 바람 불다 ⑰

저주의 감정으로 가슴이 들끓었지만 나는 이제 겉으로 들어내지 않았다。 그에게 설득당할것이 아니라면 그와 감정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일은 내게 아무런 도움도 못되는 것이다。

잠시 후, 나는 고즈넉한 목소리로 말했다。

『추워요。 들어갈래요』

나는 벤치에서 일어났다。

그가 나를, 따라 일어서며 말했다。

『그래? 그럽시다』

호텔현관쪽으로 걸어 오면서 그가 다시 말했다。

『다른 사람들 눈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조용히 지냅시다。 나도 다시 한번생각을 해보겠어』

『그만두세요』라고, 나는 톡 쏘아서 말했다。 그런 다음 나는 멈칫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날이 밝으면 떠나겠어요。 안녕히 계셔요』 나는 냅다 뛰어현관을 통과했고, 이층 여자들의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에 그가 우리들의 방문 앞을 지나쳐 그의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가 우리들의 방문 앞을 지나는 동안 혹시 노크소리라도 내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그는 그러지않았다。

적어도 나는 그가 그런 식으로 나를 회유해주었으면, 토라져서 즉흥적으로 가겠다고 떼를부리는 여자를 달래주었으면 하고 바랐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내 그런 소박한희망도 묵살하고 투박한 발자국 소리를내며 내 방문 앞을 지나쳤고, 자신의 방문을 안으로 잠그고 들어가 버린 것이다。

나는 그에게 떠나겠다고 말한 즉흥적인 감정을 후회하며 꼬박 밤을 밝혔다。

떠나겠다고 선언한 이상 떠나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과, 설사 말은 그렇게 했더라도 떠나지 않으면 그만 아니냐는 두가지의 생각이 번갈아 나를 괴롭혔고, 일행에서 떨어져 혼자 상행 열차에 오른 내 쓸쓸한 모습 따위가 떠올라 목이 메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조반을 먹기위해서 일행이 모두 레스토랑에 모였을때 끝내는 그가 입을 열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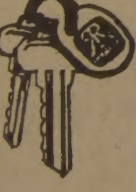
『미스 안은 아침먹는대로 서울에 가야한다는데…』

나는 그가 떠밀어 함께 누웠던 더블베드에서 떨어진느낌이었지만, 즉시 그의 말을 부정하지 못했다。

일행의 시선이 모두 내게 쏠리고, 윤나미는「안 돼 언니。 함께 왔으면 함께 가야지, 그러면 싫어」하고 안타까와했다。 권여사나 유감독도「무슨소리야?」「그런게 어딨어?」하고말했지만, 그가 미간을 좁히며「바쁜일이 있대。 보내줍시다」하고 위압적인 목소리를 내자 모두들 움츠러 들었다。 유장훈감독은 그에게 칭찬받기 위해 나를 부산 여행에초대했고, 그가 거북해 하는 것을 알고부터는 나를 경원했으며, 그런 분위기는 윤나미 모녀에게도 얼마쯤 오염되어 있었던 것이다。 일테면 나는 일행 모두에 의해서 아주 완곡하게 쫓겨난 것이다。 식사후 방으로 돌아와서 나는 내 여행가방을 챙겼고, 현관에서 일행의 환송을 받으며 택시로 호텔을 떠났다。

그러나 나는 아주 떠난 것이 아니었다。 레스토랑에서 그가 나를 쫓아 버리려고 야비하게 말하는 동안 나도 지혜를 짜낸 것이었다。 일단은 순순히 떠나는 척하자, 하지만 야음(夜陰)을 틈타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다시 돌아와서 제이 제삼의 충격을 그에게 가하는것이다。 작은편치도 여러개를 가하면 상대를 눕힐 수 있다고 텔리비전의 권투해설가는 말했었지。

◇알림=吳慶熙화백의 해외여행으로 오늘(2일)부터 金光培화백이 삽화를 담당하게 되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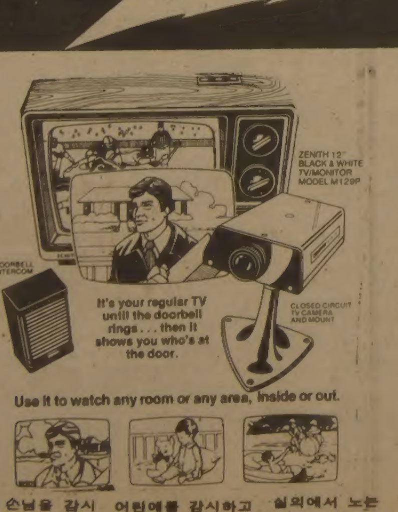
각종부동산의
매매및 상담이
필요하십니까?

- COMMERCIAL AND INDUSTRIAL PLAZA BUILDING
- APARTMENT BUILDING
- HOTEL AND MOTEL
- NEW STORE LEASE

오랜 경험과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로 수익성 높은
투자를 안내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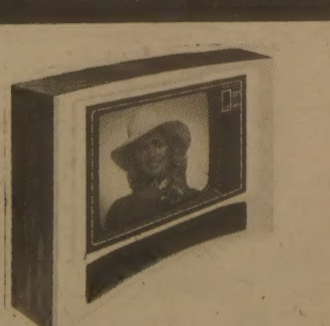
김시성
(B)497—0600
(R)298—8558
D.r. McALLISTER
250 Consumers Road

ZENITH VIDEO SENTINEL SYSTEM™




문밖의 손님을 감시 또는 대화할때
어린애를 감시하고 돌볼 때
실외에서 노는 어린이를 감시할때

특별염가



취급 품목
TV, RADIO
STEREO
ZENITH, SANSUI
AKAI, TOSHIBA

삼성사 668 BLOOR ST. W. ☎: 533—4125

* 생명교육보험
* RRSP
(세금공제 은퇴저축)
* 은퇴연금
* 사업보험
* 화재, 자동차보험

김흥량
(B) 482—0166
(R) 624—2103

IMPERIAL LIFE
covers you for life

## 88년올림픽 경기력 向上위해
# 科學的 훈련 실시

·大韓體育會는 88년올림픽의 서울개최가 확정됨에 따라 이에대비한 경기력향상방안의 일환으로 중학생선수를포함한 유망신인을 발굴하는한편 이들을대상으로 과학적인 훈련을 조기실시할방침이다.

1일 朱璐炫 체육회사무총장은 88년 올림픽을 서울에서 개최하는만큼 한국올림픽사상최대의 성과를 거두기위해 획기적인 선수훈련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그는우선 각종목에 걸쳐 유망선수발굴작업이 시급하다면서 체육회는중학생또는 일부종목에 대해서는 국민학교급학생까지를 대상으로 우수선수를 조기선발, 중점 훈련을 실시할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태릉선수촌에마련된 스포츠 과학연구소의 기구를 확대, 과학적인훈련방법도아울러검토중이라고덧붙였다.

## 11일 서울로페즈와 金煥珍 1차방어전

【파나마시티(파나마) 30일 UPI=聯合】 前세계프로복싱플라이급챔피언 알폰소·로페즈가 오는11일 서울에서 韓國의金煥珍과 WBA(세계권투협회) 라이트플라이급타이틀전을 갖기위해 30일 한국으로 떠났다.

## 物證확보 실패
### 女大生피살사건

상경여대생 朴尙恩양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1일 실증의 범인으로 보고있는 張모군(21·K大3년)으로부터 사건당일인 지난달18일밤 朴양과함께 술집에서맥주를 마셨다는 새로운 진술을 받아내는데 성공, 시체발견현장부근일대의 술집을 대상으로 행적수사에 나섰으나 물증을 찾지는 못했다.

한편 경찰은 朴양의 위액에서는 알콜성분이 나오지않았고 朴양의청바지와 슬리퍼에 묻었던 흙과 비교감정의뢰한 張군바지의 흙은 정밀검사결과 구토물이었다는점으로 미루어 張군혼자 술을 마셨고의견대립으로 우발적으로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는것으로 보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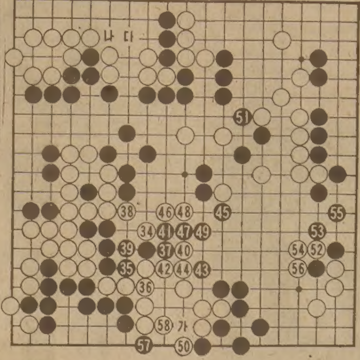
## 新羅美術大賞 발표

제3회 新羅美術大賞展에서 영예의 大賞은 金규섭씨(충남禮山)의 조각「姉妹」가, 최고상에는 동양화부문에 金성은씨(서울龍山區元曉路)의 서정, 서양화부문에 李동근씨(全北全州市고사동)의「결」, 서예부문에 李종열씨(서울鍾路區)의「伊我軒記」, 공예부문에 金한천씨(慶北慶州市城乾洞)의「다반」이 각각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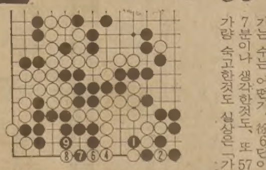
상금은 대상에 1백50만원과 日本시찰 항공료를 별도지급하며 최고상은 각 60만원씩이다.

## 秘策을 다한 攻防戰
###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4局 第8譜 134~158 (각5시간 덤5집반)



白(4段) 鄭壽鉉 <1敗>
黑(6段) 徐能旭 <1敗>



白34로 꺼뭏인데서부터 치열한 공방전이다. 어떻게보면 이곳 黑4점이 위험할것 같지만 사실은 하변白도 아직은 완생한 꼴은 못된다. 黑35, 37은 예정된 탈출. 하지만白은 49까지 달아나기에 급급한듯이 보였다. 그런데도 徐6단은 하변白을위협하여 오히려 기세가 등등했다. 手順中 黑45가 통쾌했고 (이점으로 인해 黑51의 차단이 성립한다) 白도50에 막가 전의 46, 48이 멋진수순이근처 쌍방이 힘과힘을 총동원하여 불꽃만점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白50까지로 된 하변白을 黑이「가」에 끊어 패로잡으려가는 수는 어떤가. 徐6단이 黑51을 7분이나 생각한것도, 또 57을 3분가량 숙고한것도 실상은「가」에 끊는다. 그러나 결국 黑「가」의 패는 자칫 긁어부스럼되기 쉽다 하여 黑57에 젖혀 白58로 곱게살아주고말았던 것이다.

黑51, 혹은 57로 黑「가」면 참고도 黑1이되는데 이에대해 白2때 黑3으로 실전보「나」의 곳을 끊으면 白은 이패감에 응하지않고 우선 4에 내려서서 완생한다. 黑5로 실전보의「다」에 뻗더라도 白6이하로 좌하귀에 다시 큰패가 나기때문에 黑은도저히 당할도리가 없다고 본것이다. 【一凡】

꽃도매상
437 CARLAW ST.
☎ : 465-8167

## 仁村탄생 90周年 기념學術발표회

仁村 金性洙선생 탄신90주년 학술발표회가 6일 상오 9시 세종문화회관 별관에서 열린다. 주제는「仁村의 독립사상과 노선」(姜周鎭), 「日政下의 민족교육」(崔永禧), 「日政下의 민족산업」(趙璣濬)과 「日政下의 민족언론」(崔埈)이다.

◇조선왕조 正祖의동생 恩彦君의 부인이고 哲宗의 할머니인 宋마리아 묘소가 金浦陽村에서확인되었다. 그는 천주교인 이라는 이유로 순교한 왕족 이었다.

# 朝鮮王家 순교자墓所 발견
## 경기도 金浦 陽村面서, 吳基先신부에 의해
### 王室·천주교관계 劇的설명 哲宗의 할머니인 宋마리아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전래될때 王室과 천주교회의관계를 극적으로 설명해주는 王族순교자 宋마리아(正祖의 동생이며 哲宗의 할머니이고 正祖의 庶弟인 李䄄(恩彦君)의 부인)의묘소가 경기도金浦郡陽村面馬松里山13에서 교구 사료를 수집중인 吳基先신부에 의해 발견됐다.

## 慶北·釜山 4強선착
### 황금사자기高校야구 信一·光州一 각각누르고

慶北高와 釜山高가 제35회 황금사자기 고교야구 4강에 선착했다.

# 미술5千年展 美國展示를 마치고
# 美國人의「한국視野」를 넓혔다

崔淳雨<국립중앙박물관장>

「한국미술5천년」이라는전람회 이름은 다시 생각해보아도 참 잘한일이다. 미국에서 2년동안 8개도시의 대표적인 박물관에서 미국시민 2백수십만명의 눈을놀라게해준 이 전람회에는 정말 ...

◇미국시민들을 경탄으로 몰아넣은「한국의 美」。2년 5개월동안 미국8大 도시를 순회한「한국미술5천년전」은 세계를 향한 한국文化外交의 당당한 역할을수행했다。

◇찬란한 新羅金冠은 세계의 美術史家들을 황홀감에 젖게했다。샌프란시스코展示에서 이본·다르장세 동양미술관장ⓒ이 金冠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표정을 짓고있다。

# 文化外交에 놀라운 成果
## 日의 誤導로 過小評價되었던점 시정
## 創造的인 문화전통 特色짓게돼 흐뭇

◇崔淳雨씨

# 創造論에 情熱쏟는 젊은 과학자들

◇種안에서의 다양한 변이는 유전적 한계안에서만 가능하고 種밖의 진화는 불가능하다는 이론을 보여주는 도표.

## "生命은 처음부터 種別로 태어났다"
### 지난8個月동안 세미나 60여회
### 전시장·교과서 修正委도 구성

젊은 엘리트 과학자들의「창조론」에 대한 熱氣가 뜨겁다. 성서적 진실에 ... 한다는 목표를 세운「한국창조과학회」(회장 金永吉과학원교수)는 9월 30일로 발족 8개월을 맞이했다. ... 대학순회 공개토론을 통해 특히 젊은세대와 지식층이 기독교신앙에 새롭게 접근하도록 이끄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창조과학회는 한국과학원의 크리스천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지난1월말에 발족했다. 처음 모인 사람들은 모두 25명으로, 특정교파나 단체를 초월한 비영리연구단체를 표방했다.

8개월이 지난 현재의정회원은 모두 99명으로 늘었다. 또한 준회원과 특별회원도 2백명을 넘어 회원의 총수는 3백명을 헤아린다. 정회원의 자격은 理·工·農·醫學등 자연과학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전원이 박사학위를 갖고있는 엘리트과학자들이다.

이들의 모임의 계기가 된 것은 지난해 8월에 있었던 세계복음화대성회의 한 프로그램인「창조냐 진화냐」세미나였다.


## 신앙대부흥회

### 초청의 말씀

친애하는 교포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년에 보지 못한 더운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이 지금 한창입니다. 우리의 정신생활도 이 계절과 함께 더욱 무르익어야겠읍니다.

금번 우리 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성경말씀을 중심으로한 대 부흥회를 마련하고 여러분을 모시고저 합니다. 이번에 강사로 오시는 조병서 목사님은 미국과 한국에서 신학과 역사학 두 분야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영감에 넘치는 목사이십니다. 현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리스 중앙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유성이 당면한 여러가지 문제를 깊이 연구하고 있는 사계의 많은 학자들은 지구가 1980년대를 안전히 넘길지 염려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너무나 복잡하고 엄청납니다. 이런 위급한 시기에 우리가 마련한 이 부흥회 자리에 오셔서 불안에 가득찬 미래를 위한 희망과 확신과 지혜를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담임목사 : 박 형 종
수석장로 : 노 봉 우 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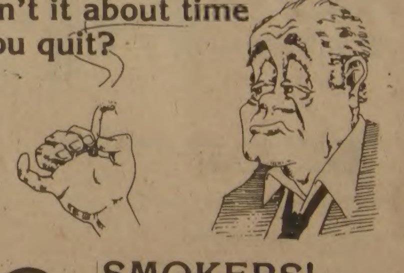
강사 : 조병서 목사님

기 간 : 1981년10월16일~25일 (매일밤7시30분)
장 소 : NORTHMINSTER연합교회당 255 FINCH AVE. W. WILLOWDALE (Bathurst St.의 동편)
전 화 : 630-4284
강 사 : 조병서 목사(미국과 한국에서 신학과 역사학 두 분야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영감의 목사님)
현 재 : L.A. 중앙교회 담임
※매일 밤 천연색 건강 영화가 상영됩니다.

총연제 : 사 랑 의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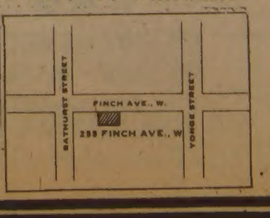
10월16일(금) 역사속의 하나님
10월17일(토) 창조론과 진화론 어느것이 옳은가
10월18일(일) 노아 홍수의 멸망과 오늘
10월19일(월) 이스라엘과 출애굽 그리고 우리
10월20일(화) 이스라엘과 아랍의 투쟁
10월21일(수) 유대의 멸망과 바벨론
10월23일(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랑의 우물
10월24일(토) 내가 원하는 사랑
10월25일(일) 행복한 가정

### 5일 금연학교




SMOKERS!
Enjoy Life More!
Enjoy Life Longer!

기 간 : 1981년10월10일~14일 매일밤 7시30분
장 소 : NORTHMINSTER연합교회당 255 Finch Ave. W. Willowdale




토론토한인 제칠일 안식일예수재림 교회